

목 차

延安李氏宗報

2026년 통권 제92호



표지 설명

: 靑蓮祠(청련사) 전경
청련 이후백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신편신역 청련집』 출간 -관련 내용 66페이지

발 행 일 2026년 1월 일

발 행 인 李 赫 範

편 집 인 李 仁 培

편집위원 枝熙, 昌雨, 明勳
鍾億, 鉉星, 浩和

발 행 처 연안이씨전국대중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95-15(양재동) 연이회관 3층

☎ (02) 574-2622

팩스 (02) 3462-2622

이메일 inbae-49@hanmail.net

인 쇄 처 족보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767-2호

☎ (02)738-2114

정가 13,000원

회비·찬조·증보 계좌번호

농협 355-0045-7645-13
연안이씨전국대중회

· 선조에 관한 글/기고문

- 02 신년사 “ 丙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4 『삼한갑족 연안이씨 약설』(4판)
- 15 장령공파 십삼정려 (10)
- 30 충정 李貴공의 인조반정 전후와 이괄의 난 서막
- 41 족보(族譜·family tree)에는 많은 보물이 들어 있다
- 58 조선후기의 대표적 화가 이인문

· 소 식

- 62 세계 각 나라의 설날 풍경
- 64 나의 산행기
- 66 청련 이후백 선생 신편신역 ‘청련집’ 출판기념 강연회 개최
- 72 참군공파 내력
- 76 연천 송의전 추계 대제 봉행
- 80 연성회 탐방-제주목사를 지내신 서봉 지방·만오 괴·아계 익태 공 유적지
- 88 연수회 탐방-여주 세종·효종대왕 영릉 그리고 남한강 신록사
- 92 연안이씨 시조고 대제 봉행
- 98 贈 좌찬성공(諱 중무), 贈 좌의정공(諱 회림), 贈 이조판서 장령공(諱 훈) 추계 제향 봉행
- 102 贈 영의정(휘 정화) 정경부인 안동권씨 제향 봉행
- 106 연천군(휘:보정) 신도비 복구 제막식
- 108 한국족보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110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
- 111 장재남 작가 개인전 ‘세월의 길목’-이용혁
- 114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BOSTON UNIVERSITY 입학-이서현
- 116 연안이씨 지역 종친회 회장 취임
- 117 전국대중회 증보 찬조금 납부 현황
- 120 전국대중회 등록종회 년회비 납부 현황
- 121 관사공파 중시조 재실 신축성금 모금 안내
- 124 증보 원고 및 구독 안내

“丙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多事多難했던 乙巳年을 뒤로하고 希望찬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延安李氏 모든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고, 大地를 박차고 달리는 赤兔馬와 같이 活力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全國大宗會는 우리 延安李氏의 位相을 높이고 崇祖 敦睦하는 門中으로 昇華하는데 努力하고 있습니다. 全國大宗會의 첫째 任務는 始祖 墓域保存과 始祖考님 大祭 奉行입니다. 始祖考님 大祭를 品位있게 奉行하고 參禮하시는 宗員님들을 便安하고 安全하게 모시는데 努力하고 있습니다.

始祖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뿌리를 내린신지 136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始祖님께서 물려주신 피가 흐르고, 이 땅에 흐르는 같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所重하고 貴한 因緣은 代代孫孫 이어질 것입니다. 近年 統計에 의하면 우리 延安李氏 宗員은 約 165,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統計에 잡히지 않은 地域에는 몇 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最近에 ‘社團法人 韓國族譜유네스코登載推進委員會’가 結成되어 우리도 加入하였으며 제1차 각 門中 族譜報告大會에서 1694년 平壤監營 發刊本인 詹事公派 甲戌譜를 報告하였습니다. 門中과 家庭에 保有中인 族譜가 있으시면 發刊年度를 살펴보고 1800年 以前 發刊本이면 大宗會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大宗會 運營豫算은 大宗會 任員과 各級 宗中 및 地域宗親會에서 納付하는 年會費와 贊助金으로 充當하고 있습니다만 좀 劣惡한 편입니다. 宗員님들의 關心과 協助를 付託드립니다.

今年度에는 始祖墓域의 산짐승 侵入 防止 措置를 하고, 延源祠 지붕 추녀 補修 工事を 하여, 추녀가 짧아 始祖考 大祭時 降雨에 不便했던 점을 補完하겠습니다.

全國에 계신 宗員님들이 서로 疏通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팅방(이야기방)을 運營하고 있으니 서로 意見을 나누시고 親睦을 圖謀하시기 바랍니다.

今年이 會長 任期의 마지막 해 입니다. 남은 任期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指導鞭撻을 當付드립니다.

을 한 해 우리 延安李氏 家族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2026년 丙午 元旦

延安李氏 全國大宗會 會長 靈山 李赫範 拜上

대중회는 지난 2024년 5월 27일 개최된 대중회 임원회의에서 연안이씨 가족이면 지켜야 할 문중 기본방침(宗是)을 정하고 이를 전 종원에게 알려 생활화하고 실천에 옮겨 삼한갑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延安李氏宗是

연안이씨 문중 기본방침

- 崇祖尚門 숭조상문
조상을 숭배하고 문중의 위상을 높입시다.
- 敦睦敦宗 돈목돈종
일가 친척간에 사이가 좋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 訓育啓導 훈육계도
후손들에게 좋은 품성과 도덕을 가르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웁시다.





三韓甲族 삼한갑족

延安李氏 연안이씨 略說 약설 (四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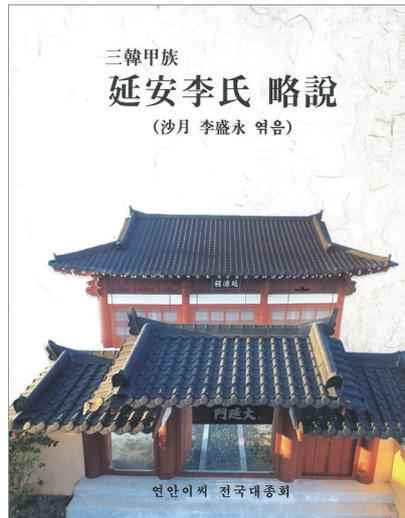


◆ 전국대중회 고문
부사공파 22세 이성영 (李盛永)

<91호에 이어 계속>

延安李氏 略說 4관은 2007년 전국대중회 성영 전 회장께서 古書에 의한 연안이씨 선조님들의 업적과 행적을 쉽고 폭넓게 의역 집약하여 모든 후손들이 연안이씨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안이씨 홍보용 책자로 4회에 걸쳐 재교정·편집하여 내실있게 발간한 책자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연안이씨 문중은 명문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삼한갑족의 후손답게 송조상문(崇祖尙門)의 전통을 갖춘 명문(名門)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녹훈(錄勳)

조선조에는 왕조의 개국(開國)과 사직(社稷)의 보존에 공이 큰 사람을 공신(功臣)으로 책록하고 부원군(府院君: 정1품) 또는 군(君: 종1품이하)을 봉하는 봉군(封君) 제도가 있었다.

공신책록은 1, 2, 3, 4등으로 구분하며 이를 정공신(正功臣)이라 하고, 이에 버금가는 이른바 준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하며, 정공신의 직계 선조 또는 후손에게 보조공신(補助功臣)을 책록하였다. 봉군은 정공신 뿐만 아니라 원종공신과 보조공신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조 때 공신 책록은 태조 때 개국공신(開國功臣)을 비롯하여 총 27회였으나 7회는 삭훈되고, 20회 671인이 정공신으로 녹훈되어 있는데 연안이씨는 모두 10명이 11회에 걸쳐 정공신으로 녹훈되었다.

이숙기(李淑琦)가 세조 때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 성종때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 이석형(李石亨)이 좌리공신 4등, 이승원(李崇元)이 좌리공신 3등, 이곤(李坤)이 중종 때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 이후백(李後白)이 선조 때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 이광정(李光庭)과 이호민(李好閔)이 宣祖 때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 이귀(李貴)가 인조 때 정사공신 1등, 이시백(李時白)과 이시방(李時昉)이 정사공신 2등에 각각 녹훈되었다.

- 적개공신은 이시에 난을 진압한 전공(戰功)이고,
- 좌리공신은 태조 이후 성종 때 까지 조선조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공이 큰 사람들이며,
- 정국공신은 폭군 연산주를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이른바 중종반정에 공이 큰 사람이고,
- 광국공신은 중국 명나라 공식 문서에 잘못된 종계를 바로 잡는데 공이 큰 사람들이며,
- 호성공신은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임금을 호종하여 잘 보필한 공이 큰 문신들이고,
- 정사공신은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세운 이른바 인조반정에 공이 큰 사

람들에 대한 공신책록이다. 적개와 호성은 전란을 극복한 공이고, 정국과 정사는 폭군을 몰아내는 반정의 공이며, 좌리와 광국은 평상 직무에 충실했던 공로이다. 당쟁 고변 사건이나 후에 삭훈된 공신 책록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정사공신에 책록된 이귀, 이시백(장자), 이시방(3자) 삼부자(三父子)는 광해주의 도덕적, 인륜적 타락에 반기를 들고 입기명륜(立紀明倫: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인륜을 밝게 한다)의 기치 아래 일어난 이른바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실질적인 주모자이며 반정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이귀는 반정후 호위대장과 이조참판을 겸한 막강한 실권을 장악했지만 반정의 공과 맡은 직책을 이용하여 자기 관작을 높이거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정승직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지만 문관출신의 다른 반정 1등 공신 이괄테면 김류, 신경진, 최명길, 김자점 등이 모두 영상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직은 찬성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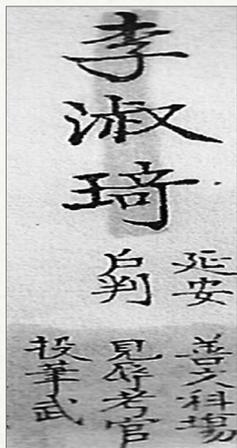
9대 봉군(封君) 세계도



대체로 1등공신에 책록되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곧 오만해지고 인심을 잃게 되어 머지 않아 폐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귀의 경우는 스스로 겸손하고 광명정대(光明正大)를 처신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조 이후 혹심한 당쟁이 이어졌지만 본인과 그 후손들은 9대에 이어지면서 11인이 부원군 또는 군에 봉해져 가문은 이른바 「9대 봉군(九代封君)」의 영예를 얻었다.

이숙기는 단종 1년에 문과 진사과에 2등으로 급제하였지만 대과는 무과(武科)에 2등으로 급제하고 세조 2년에 무과 증시에도 급제하여 문무를 겸한 다능한 인재로 무관으로 보국하여 판서의 직에 올랐다.

청선고(淸選考) 녹훈(錄勳) 적개공신편(敵愾功臣扁) 1등공신 이숙기(李淑琦) 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공의 문무 겸전을 증명하고 있다



善文(선문)

공은 글을 잘하였는데

科場見辱考官(과장견욕고관)

과장에서 시험관에게 욕을 당하자

投筆(투필)

붓을 던져 문과 시험을 포기하고

武(무)

당시 동시에 실시 중이던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2등으로 합격하였다.

(增補)

세조12년에 함길도(이시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함경도로 변경) 길주(吉州) 지방의 강력한 토호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켜 그 세력이 관군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하여 함경도지방 문무 수령들이 잇달아 수난을 당하자 조정에서 진압군을 편성하였는데 이숙기는 오위의 정7품직에 불과한 사직(司直)으로 있으면서 진압군의 말단 간부인 맹패장(猛牌將 : 지금의 소대장급)에 편성되어 참전하였다.

반란 진압중에 혁혁한 공을 세워 평난 중에 이미 남이장군과 함께 정3품의 절충장군(折衝將軍)에 특진하였고, 평난 후에 적개공신 1등에 녹훈되고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으며, 종2품의 이조참판에 특진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여진 정벌에 나서 공을 세웠으며, 호조판서에 오르고, 성종2년에 좌리공신 4등에도 녹훈되었다. 시호 정양(靖襄)과 부조지전(不祧之典 : 四代從祀)에 구애받지 않고 영구히 집안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낼 수 있는 특

조선조 녹훈(錄勳)

연도	공신명	1등	2등	3등	4등	계	연안이씨 공신
태조 1년 (1392)	개국 (開國)	15	9	15		39	
정종 원년 (1398)	정사 (定社)	7	10			17	
태종 원년 (1401)	좌명 (佐命)	4	3	9	21	37	
단종 원년 (1453)	정난 (靖難)	12	8	17		37	
세조 원년 (1455)	좌익 (佐翼)	7	12	22		41	
세조 13년 (1467)	적개 (敵愾)	6	23	12		41	李淑琦(1등) 延安君
예종 원년 (1469)	익대 (翊戴)	8	5	24		37	
성종 2년 (1471)	좌리 (佐理)	9	30	36		74	李崇元(3등) 延原君, 李石亨(4등) 延城府院君, 李淑琦(4등) 延安君
중종 원년 (1506)	정국 (靖國)	5	13	31	58	107	李坤(4등) 延城君
중종 2년 (1507)	정난 (定難)	1				1	
선조 24년 (1591)	광국 (光國)	3	7	9		19	李後白(2등) 延陽府院君
선조 37년 (1609)	호성 (扈聖)	2	30	53		85	李好閔(2등) 延陵府院君, 李光庭(2등) 延原府院君
선조 37년 (1609)	선무 (宣武)	3	5	10		18	
선조 37년 (1609)	청난 (淸難)		2	2		5	
인조 원년 (1623)	정사 (靖社)	9	13	27		49	李貴(1등) 延平府院君, 李時白(2등) 延陽府院君, 李時昉(2등) 延城府院君
인조 2년 (1624)	진무 (振武)	3	9	20		32	
인조 5년 (1628)	소무 (昭武)	1	2	3		6	
인조 6년 (1629)	영국 (寧國)	2	2	1		5	
숙종 7년 (1681)	보사 (保社)	2	1	2		5	
영조 4년 (1728)	양무 (揚武)	1	7	7		15	
계		100	191	300	79	670	

기사(耆社)

조선조 때 정2품 이상의 고위 공직에 있다가 나이가 많아 공직에서 물러난 70세 이상의 원로들 중에서 국정을 자문케하는 기로소(耆老所：耆社) 제도가 있었다. 오늘날의 국정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이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이미 재직 당시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라의 원로로서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 조선조 전 기간을 통하여 기로소에 든 사람은 692인 인데 연안이씨는 모두 22인으로 성씨별로는 3위이다.

연안이씨 기사(耆社) (淸選考)

조선조 기사	연안이씨 기사	비 고
692	22	상위 (3)
(연안이씨)		
광정(光庭) : 광해 4년 78세 졸	호민(好閔) : 광해 5년 82세 졸	
귀(貴) : 인조11년 77세 졸	정귀(廷龜) : 인조 2년 72세 졸	
경엄(景嚴) : 인조17년 74세 졸	관징(觀徵) : 숙종 3년 78세 졸	
인징(麟徵) : 숙종 年 세 졸	철보(喆輔) : 영조51년 80세 졸	
정보(鼎輔) : 영조29년 74세 졸	지억(之億) : 영조35년 72세 졸	
길보(吉輔) : 영조30년 70세 졸	복원(福源) : 정조 3년 74세 졸	
명식(命植) : 정조 4년 81세 졸	시수(時秀) : 순조 5년 77세 졸	
익운(益運) : 순조 8년 70세 졸	조원(肇源) : 순조18년 75세 졸	
약우(若愚) : 철종 5년 79세 졸	학수(鶴秀) : 철종 7년 80세 졸	
가우(嘉愚) : 철종14년 70세 졸	명적(明迪) : 고종16년 78세 졸	
풍익(豐翼) : 고종21년 세 졸	순익(淳翼) : 고종24년 72세 졸	

증시(贈諡)

조선조에는 고위 관직을 지낸 현신(賢臣), 명유(名儒), 절신(節臣) 등에 대하여 죽은 후에 생전의 행적에 따라 합당한 대명(大名) 즉 시호(諡號)를 내리는 증시(贈諡) 제도가 있었다. 시호를 내릴 만한 사람이 죽으면 임금은 그 사람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시장관(諡狀官)을 임명하고, 시장관은 그 사람의

행적을 상세하게 서술한 시장(諡狀)과 3개의 시호안을 상주하면 임금이 1개 안에 낙점하거나 더 좋은 시호가 있으면 이를 시호로 내린다. 시호는 그 자체로서 나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비록 두 자로 구성되지만 그 사람의 공식적인 행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청선고(淸選考)에 따르면 조선조에 시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1,408인 인데 연안이씨로서 시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59인으로 전체의 4.2%나 된다.

연안이씨 증시(贈諡) (淸選考)

조선조 증시	연안이씨 증시	비 고
1,408	58	4.2%
(연안이씨)		
貴齡(康胡), 石亨(文康), 末丁(平靜), 崇元(忠簡), 淑琦(靖襄), 淑瑛(文壯) 澍(靖穆), 後白(文淸), 光庭(文忠), 好閔(文僖), 廷權(文忠), 貴(忠定) 明漢(文靖), 觀徵(靖僖), 景義(文貞), 時白(忠翼), 時昉(忠靖), 時稷(忠穆) 袞(忠定), 道宰(文貞), 惇五(忠顯), 惇敍(忠愍), 一相(文肅), 殷相(文良) 端相(文貞), 翊相(文敏), 喜朝(文簡), 海朝(文僖), 天輔(文簡), 鼎輔(文簡) 喆輔(忠憲), 直輔(文敬), 敏輔(孝貞), 瑄(忠獻), 瑜(忠穆), 沃(貞節) 有吉(忠毅), 述原(忠剛), 福源(文憲), 性源(文肅), 文源(翼憲), 肇源(文景) 始源(文簡), 鼎運(貞敏), 益運(靖肅), 時秀(忠正), 存秀(文翼), 晚秀(文獻) 鶴秀(文獻), 龍秀(孝簡), 明迪(文靖), 命植(文貞), 祖淵(忠貞), 鐘愚(文憲) 若愚(文簡), 嘉愚(文貞), 教翼(孝憲), 道宰(文貞)		

서화(書畵)

연안이씨 선조 가운데 글씨를 잘 썼다고 기록된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시백(李時白)은 초서(草書)를 잘 썼고, 이정보(李鼎輔)는 사육체(四六體), 이조원(李肇源)은 전자체(篆字體), 이만부(李萬敷)는 고전필분체(古篆必分體)와 종정체(鐘鼎體), 이종우(李鐘愚)는 독특한 글씨체를 개발하여 그의 호 석농(石農)을 붙여서 석농체(石農體)라 하였다.

그 외에도 이명한(李明漢), 이관징(李觀徵), 이단상(李端相), 이희조(李喜朝), 이옥(李沃), 이만수(李晚秀), 이도재(李道宰) 등은 특출하게 글씨를 잘 써서 명필로 이름난 사람들이다.

연안이씨는 선조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으로 이시담(李時聃)은 매죽연국(梅竹蓮菊)을 즐겨 그리면서 그의 호를 사우당(四友堂)이라 하였고, 이공우(李公愚)와 이복우(李福愚)는 사군자(四君子：梅蘭菊竹)를 잘 그렸다. 이공우의 그림 「매도(梅圖)」는 덕수궁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교익(李喬翼)은 산수화(山水畫)와 인물화(人物畫)를 잘 그렸는데 그의 「호접도(湖蝶圖)」와 「노승소요도(老僧消遙圖)」가 역시 덕수궁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종우(李鐘愚)는 「강남춘도(江南春圖)」가 유명하였으며, 조선조 말 이도영(李道榮)은 산수화(山水畫), 인물화(人物畫), 화초(花草) 특히 묵사분재(默四扮材)를 잘 그렸는데 그의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와 「산수도(山水圖)」가 개인 소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연옹공(紫煙翁公) 인민(寅旻)은 9대조(李寧)가 누명을 쓰고 해주로 유배되었다가 누명이 해명되어 유배가 풀렸으나 귀경하지 않고 해주에 살았고,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세보(世譜)가 유실되어 상계(上系)가 단절되자 후손들이 공의 9대조 영(寧)을 시조로 하는 해주이씨(海州李氏)를 창씨(創氏) 변관(變貫)하여 세상에 해주이씨 이인문(李寅文)으로 오식(誤識)되어 전해 오다가 상계가 연안이씨(延安李氏)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4세 좌시랑공(左侍郎公, 仁后)의 후손인 것이 확인, 복관(復貫) 하여 병술보(丙戌譜：2006년) 족보에 수록되어 있다.



△ 이인민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일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시중의 인물사전 등에 「寅叟」을 「인문」으로 오역(誤譯)하고, 전(前)성관(姓貫) 「해주이씨(海州李氏)」로 잘못 기록되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공은 정조 때 도화서(圖畫署) 화원(畫員),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종3품)를 지냈고,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와 동갑으로 도화서에 함께 근무하면서 당대 쌍벽을 이룬 화가로 산수화(山水畫)를 비롯하여 도석인물(道釋人物), 영모(翎毛), 포도(葡萄)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 발휘하였고, 화풍(畫風)은 남종화(南宗畫)와 북종화(北宗畫) 등 각체의 화법을 혼합한 특유의 화풍을 보였다.

대표작으로는 8.6m나 되는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로 현존하는 조선조 후기 최대 거작(巨作)으로 춘하추동을 사계절에 걸친 천산만학(千山萬壑) 대 자연의 변화무쌍한 절경과 이를 배경으로 인간이 전개하는 평화로운 생활상을 묘사한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이 외에도 『송하담소도(松下談笑圖)』,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대부벽설산수도(大斧劈齧山水圖)』, 『십우도(十友圖)』, 『도봉원장(道峰苑莊)』, 『어초도(漁樵圖)』, 『단발령망금강도(斷髮嶺望金剛圖)』, 『수노한거도(樹老閑居圖)』 등 많은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이인민 『십우도(十友圖)』, 국립중앙박물관

연안이씨 서화가

구분	이름	비고
글	시백 (時白)	초서 (草書)
	정보 (鼎輔)	사육체 (四六體)
	조원 (祖源)	전자체 (篆字體)
	만부 (萬敷)	고전필분체 (古篆必分體) 와 종정체 (鐘鼎體)
	종우 (鐘愚)	석농체 (石農體)
씨	명한 (明漢), 시백 (時白) 관징 (觀徵), 단상 (端相) 희조 (喜朝), 옥 (沃), 조원 (肇源), 만수 (晚秀) 만부 (萬敷), 종우 (鐘愚) 도재 (道宰)	명필 (名筆)
그림	시담 (時聃)	매죽연국 (梅竹蓮菊) 을 즐겨 그리면서 그의 호를 사우당 (四友堂) 이라 함.
	공우 (公愚) 복우 (福愚)	사군자 (四君子 : 梅蘭菊竹) 를 잘 그림. 이공우의 그림 「매도 (梅圖)」는 덕수궁 미술관에 소장
	교익 (喬翼)	산수화 (山水畫) 와 인물화 (人物畫) 를 잘 그림. 「호접도 (胡蝶圖)」와 「노승소요도 (老僧消遙圖)」가 덕수궁미술관에 소장.
	종우 (鐘愚)	「강남춘도 (江南春圖)」 유명
	도영 (道榮)	산수화 (山水畫), 인물화 (人物畫), 화초 (花草) 특히 묵사분재 (默四扮材) 를 잘 그림. 「기명절지도 (器皿折枝圖)」와 「산수도 (山水圖)」가 개인소장으로 전해짐.
	인민 (寅旻)	「강산무진도 (江山無盡圖)」, 「송하담소도 (松下談笑圖)」, 「송계한담도 (松溪閑談圖)」, 「하경산수도 (夏景山水圖)」, 「누각아집도 (樓閣雅集圖)」, 「대부벽설산수도 (大斧劈靨山水圖)」, 「십우도 (十友圖)」, 「도봉원장 (道峰苑莊)」, 「어초도 (漁樵圖)」, 「단발령망금강도 (斷髮嶺望金剛圖)」, 「수노한거도 (樹老閑居圖)」 등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다음호에 계속〉

朝鮮時代 旌表政策의 表象

장령공파 십삼정려(10) 掌令公派 十三旌閣

◆의정공과종중 보학연구소장
천추(諱穉) 이종억(李鍾億)



<91호에 이어 계속>



第5旌門 효자 연봉공 이기설

(孝子 蓮峯公 李基高) 1558~1622

1558년(명종 13) ~1622년(광해군 14)

효자로 유명한 영응공(永膺公) 이지남(李至男)의 둘째 아들이며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사망한 이연침(李彦忱)의 손자이다. 자는 공조(公造), 호는 연봉(蓮峰)이다. 나서부터 남다른 재질을 보였고, 14세 때 형(兄) 수재공(秀才公) 기직(基稷)과 더불어 수암(守庵) 박지화(朴枝華)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여 주기론(主氣論)의 선구자(先驅者)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을 사숙하였다. 수암은 두 분 형제를 “영수(英秀)”와 “화수(和粹)”라 일컬으며, 그 자질이 순수함과 학문의 진취성(進就性)을 극찬하였다.

선조(宣祖) 18년 부모에 대한 효성이 널리 알려져 참봉(參奉)에 발탁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봉훈랑(奉訓郎)에다 한성부(漢城府) 판관(判官)이 되었고, 이듬해 호조정랑(戶曹正郎), 봉직랑(奉直郎)에다 덕천군수(德川郡守) 제수(除授) 받음. 1596년(선조 29) 통덕랑(通德郎) 청풍군수(淸風郡守) 제수(除授) 받고 부임하였다. 군사관계로 찬획사(贊畫使) 이시발(李時發) 무고(誣告)에 의한 어려움을 받은 후, 병(病)을 핑계로 관직을 사양(辭讓)하고 서강(西江)에서 살았다.

1601년(선조 34) 염근리(廉謹吏)에 피선(被選). 선조(宣祖)께서 승하(昇遐)하실 때까지 23차례 벼슬자리를 제수(除授) 하였으나, 모두 사양(辭讓)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즉위(卽位)하고 나서 이천부사(利川府使)를 제수(除授) 하였으나 나가지 않음. 특별히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제수(除授) 되고 4차례의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린 끝에 체직(遞職)되었다. 부호군(副護軍),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등의 벼슬에 연달아 제수(除授)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610년(광해 2)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1617년(광해 9) 겨울, 선유봉(仙遊峯)으로 이사.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듬해(1618년) 선유봉에서 김포(金浦)로 이사. 그 다음해(1619년) 김포에서 통진(通津)으로 이사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특히 경사(經史), 천문(天文), 지리(地理), 율학(律學), 병술(兵術) 등 여러 방면에 정통하였다. 1623년(인조 즉위) 연신(筵臣)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건주(建奏)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추증(追贈) 되었으며, 1633년(인조 11) 인조(仁祖)가 특명으로 정려(旌閭)를 내렸는데 그 사액(賜額)을 효자삼세(孝子三世)라 하였다. 효자(孝子)·징사(徵士)·청백리(淸白吏) 선조조(宣祖朝)의 유현(儒賢) 서호삼고사(西湖三高士)라 칭하였다. 저서로 『연봉집(蓮峰集)』.

연봉선생 유사(遺事)

선생이 일찍이 공조랑(工曹郎)이 되어 선역(繕役)을 구관(句管 : 맡아 다스림)함에 한 중사(中使 왕의 습을 전하는 내시)가 편복(便服)으로 공청(公廳)에 앉음으로 선생이 일이 있어 들어가다가 그 무례함을 미워하여 버티어 서서 나아가지 않으니 중사(中使)가 크게 부끄러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과하였다.

그 고을을 다스림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은 의식(衣食)을 주고 생업(生業)에 종사하게 하여 춘추(春秋)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어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하여금 모두 기뻐 놓고 과하게 하며 자봉은 매우 간구하여 관청중의 의식의 제구는 반드시 자기 노복(奴僕)의 받치는 것으로 하여 한치의 관포(官布)도 소비하지 않고 말에 쓰는 끈이 다 끊어짐에 하리(下吏)가 가죽끈을 얻어 이으니 선생이 물리치고 마승으로 대신하며 관을 버리고 감에 행장(行裝)이 담연하고 도중에서 상하(上下)의 탁제(橐齋)를 조사하여 비록 마사초리(麻絲草履)라도 모두 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워버리고 갔다.

선생이 청풍(淸風)을 떠난지 20여년에 자(子) 돈오(惇五)가 공사(公事)로 영남(嶺南)에 가다가 군경(郡境)을 지나게됨에 이민(吏民)과 부모(父老)가 다투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전날 우리 이사군(李使君)의 아들이라”하며 선정(善政)을 칭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까지 있으니 그 유애가 사람에게 미침이 이리하다. 선생이 취여(取與)하는데 있어서 일호(一毫)는 구차히 하지않아 영산함이 없고 조석 지공에 비록 한포기 채소라도 반드시 출처를 물은 뒤에 먹으며 음식은 충장할 뿐이요, 의복은 몸을 가릴뿐이요, 거처는 풍우를 가릴뿐이라, 사람들이 능히 견디지 못할 것도 태연하였다.

금릉정사(金陵精舍)가 대강(大江)에 가까우니 바야흐로 봄과 여름에는 게[蟹]가 매우 풍요하여도 선생은 가동을 금하여 잡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

이기설(李基高) : 1558(명종 13) ~ 1622(광해 14), 태자첨사공과 15세

朝鮮中期 學者, 文臣, 자 公造, 호 蓮峰. 孝子·徵士·清白吏·宣祖朝의 儒賢·西湖三高士. 永膺先生 李至男(1529~1577)의 아들, 掌令 仲孚 李彥忱(1507~1547)의 손자. 守庵 朴枝華(1513~1592)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主氣論의 선구자 花潭 徐敬德(1489~1546)의 학문을 私淑하였다. 저서로는 蓮峯先生文集이 있다.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관량(官梁 : 관에서 고기잡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일찍이 여러 아이들을 훈계하여 말하기를 “재물에 임하여 구차히 얻지 않으면 백사를 다할 수 있으니 너이는 이를 복응하여 잊지 말라.” 하고 또 벽에 쓰기를 “피 뿜어 사람을 더럽히면 먼저 자신의 입을 더럽힌다” 하였다.

집안이 비록 가난하여도 주상(紉裳 : 명주치마)와 단의(緞衣 : 비단의복)를 때에 맞추어 백수에게 만들어 올리고 또 자신의 노비를 여러 자매와 및 질녀에게 분급한 것이 많았다.

비록 역질이나, 이사하여 군박할 때라도 제사는 일찍이 폐하지 않고 매양 말하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하고 비록 만년에 병이 깊어도 부축하여 지내기를 삼가하고 국속에 무릇 기일제(忌日祭) 일에 여러 자녀가 제사를 돌러가며 행하여도 선생은 이로써 옳지않다 하고 대소 제사를 자가에서 진행하여 일찍이 게으름이 없음에 친히 찬품을 보살펴서 정결하게 하고 칼로 베이던 나머지는 반드시 구석진 곳에 묻으며 제기(祭器) 등 물은 하나도 남게게 빌리지 않았다.

평시에 일이 없으면 반드시 관대를 단정히 하여 종일을 지내니 처자가 일찍이 그 게으른 태도를 보지못하고 공가에 서신을 내어 간촉하는 일이 없으며 사는 강사가 비와 바람을 가리지 못하여도 수리하지 않으며 이도 또한 내 일생을 마치기에는 족하다 하고 신물한 뒤에 집에 여재(餘財)가 없어 부포로 염장(殮葬)할 미천을 삼으며 졸하던 전일에 아들 돈오(惇五)로 하여금 써서 벽에 붙이기를 “무격(巫覡) 기도하는 일은 일체 말라”하고 또 말하기를 “남자(男子)가 세상을 끝마침에 부인은 물러가라”하니 여러 아들이 울며 말하기를 “병환이 장차 낳으신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하면 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다만 차창(此窓 : 차창의 설(說)은 정자집(程子集)에 있다)이 격하였을 뿐이다”하였다. 역책(易箒 : 사람이 죽음)하던 하루전에 강위재(姜渭載)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군(先君)이 갈문(碣文 : 비석 글)을 오봉(五峯 : 李好閔)에게 부탁하였으나 오봉(五峯)이 매양 겸퇴하여 지금까지 천연하고 내 병이 이에 이르니 죽어도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밝는 새벽에 돈오(惇五)와 함께 가서 내병이 위중함을 고하고 내 말을 전하기를 “생전에 갈문 이름을 보고자 한다”하면 저의도 반드시 강잉하여 지을 것이다 어찌 많은 말을 하랴” 하였다.

역책(易箒)하던 아침에도 정신이 어지럽지 않아 평시와 같이 의관을 바로하고 단정히 앉아 기운을 차리지 못할 때까지 이르고 선세(先世 : 先代)의 비갈(碑碣)

과 제사등사(祭祀等事)를 처치하기 평일과 다름이 없으며 사람을 시켜 위재(渭載)를 재촉하여 오게하고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나아가 지필을 가져오게 하여 겨우 “교자(教子)” 두자를 쓰고 붓을 던지며 기진하였으나 눈을 감지 않으니 위재(渭載)가 와서 큰 소리로 “위재(渭載)가 연릉(延陵: 이호민(李好閔))의 집에서 왔습니다” 하니 선생이 목구멍 안에서 작은 소리로 “무어라 하더냐?” 대답하기를 “연릉(延陵)이 재당하기를 감히 빨리하지 않겠는가?”하였다 하니 선생이 드디어 눈을 감았다.

장여현(張旅軒)이 일찍이 선생이 먼저 사기(死期)안 일을 말하기를 “이는 하나의 부동심(不動心)이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리에 밝게 됨으로 문득 이러한 것이다”하였다.

연봉선생(蓮峯先生) 문집(文集)에서

이청풍전(李清風傳)

황뉴(黃紐)

이청풍(李清風) 기설(基嵩)이라는 이 있으니 한양(漢陽) 사람이다. 일찍이 부친을 잃고 모친 섬김에 정성을 다하니 모병(母病)에 단지(斷指)하여 효험을 보아 천년으로 마치고 양상에다 노막하여 죽을 먹고 종상하며 노차(盧次)에서 성중에 들어옴에 반드시 도보하고 음식은 비록 채소라도 먹지 않으며 한집안 사람을 대함에도 또한 말이 없고 탈복한 뒤에 성묘(省墓)하여도 종일 눈물을 흘리며 기제(忌祭)와 그 달에도 연락에 참여하지 않고 전기 일순하여 언소를 끊으며 무릇 기명의 수와 진절하는 절차에 비록 세미한 것이라도 예경(禮經)에 어긋나면 쓰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기이 여기었다.

황뉴(黃紐) : 1578~1626

자는 회보(會甫), 호는 반간(槃澗), 본관은 장수(長水). 父는 현감 황준원(黃俊元)이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4년) 생원이 되고, 이듬해 1613년(광해5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616년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가 되었다. 1625년(인조3)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고, 이어 경성판관(鏡城判官)을 역임하였다.

부상을 탈복하는 날에 예조(禮曹)에서 계달(啓達 : 임금에게 아뢰)을 거쳐 윤희를 받고 정문(旌門)하며 제직(除職)하니 모친의 봉양을 위하여 억지로 나아갔으나 루제(屢除)에 많이 불취하고 무주군수(茂朱郡守)으로 갔다가 이해(利害)를 모친에게 말씀드려 허락을 받고 사양하였다. 임진란 후에 청풍군수(淸風郡守)에 제배되니 고을이 남쪽에 있으므로 친교가 두려워 하여 혹 피할 것을 권하였으나 말하기를 “편안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위태로운 곳을 버림은 내 뜻이 아니다” 하고 곧 부임하니 강산의 승경과 유광한 풍취가 있으므로 마음에 기뻐하고 그 다스림은 향교(鄕校)를 완비하고 선비를 가르치며 장로(長老)를 공경하고 고유(孤幼)를 돌봄으로 앞세우고 석채(釋菜)에 힘써서 반드시 친행하고 또 동리에 문학과 사리를 아는 사람을 불러 일당에 모으고 시교(施教) 도민(導民)하는 뜻을 알려 각각 향약장이 되게하여 남전(藍田) 여씨(呂氏)가 하듯 하며 약장(約長)이 유생이 아니라 도리어 욱이 됴을 두려워하면 이름있는 이로 개택(改擇)하니 사람들이 각기 본받아 백성에 소선(小善)이 있어도 향리에 보고하고 향리에서는 군읍에 보고하며 소악이 있어도 또한 그렇게 하여 상을 주게 되면 반드시 대상을 주고 책망할 이는 또한 그 일대로 하며 애친않는 이에게는 자도로 효유하고 경형않는 이에게는 제도를 효유하며 윗사람 섬길줄 모르는 이에게는 하도를 가르쳐서 모두 고인의 선행이 두드러진 것을 증명하여 말이 매우 간절하니 부로(父老)가 혹 감읍(感泣)하고 더욱 이인(吏人)이 백성에게 해 되는 짓을 금하여 비(婢)에는 수비(首婢)가 있고 노(奴)에는 수노(首奴)가 있어 스스로 신칙하게 함으로 위엄을 떨지 않아도 감히 범하는 이 없으며 또 무산하여 갈곳이 없음을 두려워서 다 놓아 귀농시키고 다만 사령(使令) 수인만 남기어 소첩(小妾)이 질투함에 있어 곧 행장을 갖추어 쫓으니 군아에서 다 비탄하였다.

체임되어 서강(西江)에 우거함에 이웃 사람이 채소와 고기를 바침에 다 받지 않고 가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미 받친 물건과 하기 어려운 청은 미리 물리침이 났다” 하고 혹 묻기를 “어찌 향리에 살지 않으십니까?” 하면 대답하기를 “향리에는 요역등사(徭役等事)가 많아 노배(奴輩 : 자식을 비칭하여 이르는 말)를 보존하기 어렵고 혹 읍재(邑宰)에게 부탁하면 어찌 그 사이에 수욕되는 일이 없을지 알겠는가? 이것이 내가 감히 살지 못하는 바이다.”하였다.

내 친구 청풍(淸風)의 매서(妹婿 妹弟) 강백상(姜伯尙 渭聘)이 일찍이 이를 내게 말함에 내 듣고 좋게 여겼기 감히 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봉선생(蓮峯先生) 문집(文集)에서

향교동보예조상(鄉校洞報禮曹狀)

고(故) 군수(郡守) 이기설(李基堯)은 지남(至男)의 둘째 아들이다. 나면서 범상하지 않아 맑고 빼어나더니 육칠세에는 중후하여 어른같아서 아버지를 섬기고 사물을 대함이 소학(小學)을 쫓아하여 날마다 문안드리며 친히 차고 더움을 조절하여 부모가 잠수신 뒤에 물러나 먹고 밤이면 반드시 자리를 보아드리고 평상시에 아무일이 없으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이 약관이 되기전에 개연히 학문에 뜻을 두어 수암(守庵) 박공지화(朴公枝華)의 문에서 수학하여 성리의서(性理之書)를 강명함에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행하여 더욱 마음을 가다듬는 공을 쌓았다.

을해년(乙亥年 1575 선조8)에 조모 안씨(安氏) 창질로 여러달 낳지 않으며 밤낮으로 곁에 있어서 약은 반드시 먼저 맛보고 또 이질로 해포됨에 손수 약을 짓고 밤에 떠를 풀지 않았다.

정축년(丁丑年 1577 선조 10) 가을에는 부친 지남(至男)이 갑자기 병환으로 별세하니 기설(基堯)의 나이 20이다. 밤낮으로 시체를 어루만지며 울고 물은 칠 일간이나 한모금도 마시지 않으며 예절을 아는 친우에게 청하여 상사를 맡아보게 하되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반드시 정성과 조심있게 하였다.

상고를 다한 뒤에 스스로 죽기를 기하고 비록 엄동이라도 다만 옷 하나만 입고 관구 옆에서 빈소를 지키되 눈물에 피를 이어 부르짖고 몸부림치기를 잠시도 그치지 않으니 조상하는 사람이 목이메어 차마 보지 못하였다.

형 기직(基稷)과 더불어 비록 슬픈 가운데 있다 하여도 반드시 고례(古禮)를 쫓으며 가례(家禮)가 소략하다 하여 다른 예경과 여러 어진이의 예설을 상고하여 참작 실행하니 예절은 다 갖추어지고 슬픔은 한이 없었다.

장례 후에는 여막을 짓고 아내와는 서로 보지 않으며 짚자리에 엎드려서 밤에도 상복을 벗지 않고 상사(喪事)에 관한 일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또 머리를 숙여 울며 기다리니 친구도 감히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며 제사에도 반드시 몸소 제물을 만들고 그릇을 씻는 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니 모양이 과리하여 낮에 핏기운이 없으며 종일토록 궤연에서 피눈물을 흘림에 자리가 다 썩고 닭이 울자 일어나서 울음소리 그치지 않아 아침까지 잇고 조전을 지낸 뒤에는 곧 조모와 모친께 문안하고 죽을 마신뒤 물러나오니 모친 정씨(鄭氏) 너무 슬퍼

함으로 병이 증하여 장차 운명하게 되매 손가락을 찢러 피를 뽑고 약에 타서 마시게 하매 병이 곧 낳았다.

형 기직(基稷)이 그 모친의 병을 낫게하기 위하여 육즙(肉汁)을 만들어 받침에 모친이 의심하여 먼저 맛보게 하였더니 기설(基堯)은 육즙(肉汁)인지도 모르고 맛본 뒤에 모친에게 권하여 먹게하고 물러나와서 비로소 그런 것을 알고 통곡하며 곧 칼로 혀를 자르니 피가 흘러 입에 그득하였다.

형 기직(基稷)이 상중에 너무 애통하여 죽음에 물한모금 마시지 않고 거의 운명이 될뻔 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 올라가서 슬피울어 큰 비와 바람에도 그치지 않고 조석에는 다만 한줌 좁쌀을 물에타서 마시고 나물과 소금은 입에 넣지 않으니 뼈만 앙상하여 날로 쇠약하여 앓고 서는데 사람이 붙들어야 하며 울음소리 그치지 않음에 여러 어른이 그 죽을까 걱정하여 나물밥을 권하여도 먹지않고 먹어도 또한 목에 넘어가지 않으니 여러 어른이 탄식하고 차마 권하지 못하였다.

비록 탈상하였어도 기식이 엄엄하여 죽을뻔 하기를 십년에 기묘년(己卯年 1579 선조 12)에 조모상을 당하매 몹시 수척하여 모친께 문안하는데도 기어다나고 나와서는 관앞에서 울었다.

병술년(丙戌年 1586 선조 19)에 효행(孝行)이 탁이하므로써 특명으로 무주현감(茂朱縣監)을 배명하여 모친을 모시고 가서 봉양함에 의복제구는 반드시 집안에 있는 것을 쓰고 관청의 것을 쓰지 않으며 평시 제수도 반드시 나물밥으로 하였더니 송화현감(松禾縣監)이 되어서 기제를 당하여 사람에게 핑을 잡게 하였더니 얻어오지 못하므로 성효가 미진한 것이라, 하고 문을 닫고 자책하였다. 새벽녘에 핑이 대청으로 날아들어 제수에 쓰니 듣는 이 모두 감탄하고 송화 사람도 지금까지 전승하여 효감雉(孝感雉)라고 한다.

갑오년(甲午年 1594 선조 27)에 모친상을 만남에 따라 슬퍼하기를 부친상과 같이 하고 기설(基堯)이 덕천군수(德川郡守)로 발인하여 가는데 도중에서 화적(火賊)이 와서 범하므로 기설(基堯)이 빈소를 지키고 울으니 화적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가버렸다.

부모의 무덤이 각각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임자(壬子)에 새로 적성(積城)땅에 자리를 정하고 광중 옆에 빈소를 하였으나 뜻밖에 실화(失火)하니 기설(基堯)이 몸으로 관을 가려서 머리털이 다 탔고 관을 가려냄에 몸부림하여 여러 차례 까 무러치다 피어났으며 슬퍼하기를 초상때와 같이하여 침식을 전폐하고 울며 날을

새우기를 석달에 증병을 얻어 죽을뻔 하다 살아났다.

매양 기일을 당하면 검은 건과 소찬으로 물만 마시고 치재하여 삼일간을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손을 대하지 않으며 비록 병으로 앓더라도 억지로 붙들고 제사를 지내서 슬픔으로 날을 마치고 새벽에 사당에 뵈어 폐하는 일이 없고 나아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뵈기를 생시와 같이 하며 국기(國忌)에 까지도 소식하며 비록 후비(后妃)의 상이라도 또한 반드시 슬퍼하기를 친상(親喪)과 다름이 없다. 또 악인(惡人)의 처자가 동리에서 쫓겨나서 같은 동리에 오니 동리사람이 쫓고자 함에 기설(基堯)이 말하기를 그 아버 비록 악하여도 그 아들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니 동리 사람이 의롭게 여겨 쫓지않았다. 얼마 아니하여 악인의 아내가 병으로 죽으려하매 그 딸이 하늘을 부르며 울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마시게 하니 그 병이 나았고 또 김극복(金克福), 서춘학(徐春鶴)은 기설(基堯)을 본 뒤에 그 효성에 감동하여 그 모친을 극진히 섬기어 조정에서 정려하니 그 감화의 효력이 이와 같다.

평생에 비록 한 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물리치고 먹지 않으며 말하기를, 양친이 이미 돌아갔으니 어찌 차마 홀로 먹겠는가, 하고 곧 동리의 늙은 아버이 있는 이에게 주었다. 명현록 행장 및 유사가 있다.

선조 조(宣祖朝) 34년 신축(辛丑 1601年) 엄근리(廉謹吏)로 피선되다.

인조 조(仁祖朝) 11년 계유(癸酉 1633年) 효자(孝子)로 정려하고 어필(御筆)로 효자삼세(孝子三世)라 사액(賜額) 하다.

팔정삼강록(八旌三綱錄)에서

묘갈(墓碣)

조경(趙綱)

선생의 휘(諱)는 기설(基畧)이요, 자(字)는 공조(公造)이니 연안인(延安人)이다. 연안이씨(延安李氏) 휘 습홍(襲洪)이 비로소 크게 드러나니 고려(高麗)에 벼슬하여 태자첨사(太子詹事)가 되고 그 뒤에는 유학으로 높은 벼슬에 오름이 누대에 걸쳐 나왔다. 휘 인충(仁忠)은 병직결청하고 문무(文武)를 겸하니 건이(建夷 여진족)를 정벌하여 공을 세우고 벼슬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부승지에 이르며 승지는 증 이조참의(贈吏曹參議) 휘 필(弼)을 낳았다. 참의는 증 이조참판 휘 계장(繼長)을 낳았는데, 공에게 증조가 되며 누옥(陋屋)에 살며 도를 지키고 휘 언침(彦枕)을 낳으니 을사년(乙巳年 1545 명종 즉위년)에 윤원형(尹元衡), 이기(李芑), 정순봉(鄭順朋) 3간(三奸)의 화를 이르킴에 공에 장령으로 개척하다, 이기지 못하고 서천(舒川)에 적배함에 휘 지남(至男)을 낳으니 공의 고(考)이다.

젊어서 김하서(金河西)를 쫓아 배움에 독실하고 문(文)에 능함으로 학자가 영옹선생(永膺先生)이라 칭하며 을사명신(乙巳名臣) 승지 정원(鄭源)의 女에게 장가들어 가정 무오년(嘉靖 戊午年 1558 명종 13)에 선생을 낳으니 선대의 뒤를 이어 젓니를 갈기 전에 장중하여 부모의 가르침에 수고를 끼침이 없이 소학에 부합하고 14세에 개연히 구도할 뜻이 있으며 박수암(朴守庵) 지화(枝華)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을 얻음을 듣고 문하가 되니 몸을 맡겨 연구함에 어려운 것을 문답하니 속꺼지 꿰어뚫고 효우요 천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즐거고 조심하여 차마 아버지 곁에 반드시 문안드리며 음식은 반드시 맛있는 것으로 하고 손님대접은 풍결하게 하여 양지를 주로 하고 그 밖은 돌아보지 않

조경(趙綱) : 1586(선조19) ~ 1669(현종 10)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 주봉(柱峯) · 간옹(鬮翁). 시호는 문간(文簡), 조익남(趙翼男)의 아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4) 사마시, 1626(인조4) 문과에 장원급제, 대제학, 이조판서를 지냈다.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고, 165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정랑공 이돈임(李惇臨)의 장인이고, 만안당 청백리 이후정(李后定)의 외조부이다. 저서로 용주유고(龍洲遺稿), 동사록(東槎錄)이 있다.



연봉공(蓮峯公) 이기설(李基堯) 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으며 전후 거상에 수장을 입에 넣지 않기 7일에 백씨(伯氏) 수재공(秀才公 이기직(李基稷))과 더불어 지행이 비슷하니 사람들이 대련(大連)과 소련(小連)이라 일컬었다. 그 죽음에 미쳐 인금구망(人琴俱亡 : 사람 죽음을 몹시 슬퍼함)의 슬픔이 오래도록 초상화 같으니 행로가 듣고 슬퍼하였다.

만력(萬曆) 을유년(乙酉年 1585 선조 18)에 소경대왕(昭敬大王 선조(宣祖))이 유사(有司)에 명하여 효렴(孝廉)을 천거케 함에 예조에서 先生을 보문하여 1년동안에 재랑(齋郎)에 제수되기 세번이었으나 불취하고 이듬해에 이조에서 또 先生을 순덕지행으로 천거하여 주부(主簿)를 특제하고 또 청산현감(靑山縣監)을 제수하였으나 불취(不就)하니 대체 사양하여 감히 천목을 감당하지 못할 뜻을 보임이다. 겨울에 무주(茂朱)에 부임하고 기축년(己丑年 1589 선조 22)에 송화(松禾)에 부임하니 양친을 위함이다. 모두 서남(西南)의 산골마을이나 先生은 부임하여 그 백성을 천대하지 않고 향교에 나아가 교유(校儒)를 우대하고 제기(祭器)의 허른 것을 바꾸어 깨끗하게 하며 제복(祭服)의 헌 것을 고쳐 새롭게

하고 전작(奠杓)이 불결하고 음식이 맞지 않는 것은 단정하게 하며 또 향교의 유생에 충민한 자를 뽑아 석채례(釋菜禮 소나 양(羊)의 희생을 생략하고 채소따위로 간략하게 공자제를 지내는 것)를 가르치고 또 강독하여 효제(孝弟)의 도를 기도하고 향음주례(鄉飲酒禮)와 양로례(養老禮)를 행하니 한 고을이 보고 기뻐하며 백성의 시집 장가가는 것과 장송까지도 돌보아 자기일보다 낮게하고 농상(農桑)을 권하며 소송을 들음에 간략하고 분명히 하니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에 공조좌랑에 제수되고 임진년(壬辰年 1592)에 한성판관(漢城判官)을 배하니 때에 서울이 전란을 겪어 도민이 피난하여 모두 강도(江都)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先生이 진휼하여 살아난 자 천(千)이 넘고 계사(癸巳)에 정랑(正郎)에 승임되고 또 선(宣), 정(靖) 양릉(兩陵) 도감낭청(都監郎廳)을 겸하여 일이 끝남에 해주(海州) 행재소(行在所)로 분문하고 겨울에 대가(大駕)를 따라 환도하여 호조정랑(戶曹正郎)으로 군향(軍餉)을 겸관하고 또 비국랑(備局郎)을 겸하니 호조판서 권공징(權公徵)이 先生을 크게 기대하여 모든 일을 반드시 자문하였다.

이때 군문(軍門)이 우리에게 오고 요선(遼船)은 용산(龍山)으로 운향함에 군문에서 군향의 방출을 최촉하니 호조(戶曹)에서 先生이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리라 하였다. 先生이 곧 군문에 나아가 먼저 장영대오의 수(數)를 알아내고 썸대를 쓰지 않고 암산으로 삼만(三萬)석을 마당에 내어놓고 대오를 차례대로 호명하여 잠깐 사이에 나누는 일이 끝나니 이로부터 비국(備局)일이 중요한 것은 先生을 거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12월에 덕천군수(德川郡守)에 배하고 갑오년(甲午年 1594)에 정부인(鄭夫人)의 상을 당하여 병신년(丙申年 1596)에 탈상하여 청풍군수(淸風郡守)에 배하니 先生이 이내 모의(毛義)의 기쁨이 없어도 특히 시국의 어려움을 보고 감히 물러나지 못하였다.

정유년(丁酉年 1597) 9월에 찬획사(贊畫使) 이시발(李時發)이 청풍(淸風)과 제천(堤川)에 격문(檄文)을 내다가 권신에게 연좌되고 또 양읍에만 격문하니 실지로 허경이라, 찬획이 종영하지 않았다고 노하여 무고함에 선생은 조금도 성낸 빛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고비가 지난뒤에 병으로 사양하고 서호(西湖)에 부축하여 살았다. 성내에 밭을 드러놓지 않고 다른 사람과 왕내가 없으며 비록 징벽(徵辟: 임금이 초야(草野)에 묻혀 있는 사람을 불러 벼슬시킴)이 있어 세번에서 일곱번에 이르러도 응하지 않으니 당대의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두 先生의 용퇴(勇退)를 높이 찬양하여 전담성(錢淡成: 전약수(960~1003)의 자인데 송대 명신으로 40대 초반에 요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명철보신(明哲保身)하였다.)에 비유

하니 그때 先生의 나이 40세였다.

신축년(辛丑年 1601)과 을축년(乙丑年 1605)에 선조(宣祖)에서 유사에게 명하여 염근과 덕행을 뽑음에 정부에서 先生으로 응지하여 초자(超資 : 차례를 건너 뛰어 계급을 올리는 것)를 특명하고 사도시정(司導寺正)에 제수하나 불취하고 무신년(戊申年 1608) 광해군 즉위년에 광해군(光海君)이 사위(嗣位)함에 장령으로 세 번 불렀으나 선생이 네 번 간절히 사양하고 선유봉 아래로 퇴거하고 경술년(庚戌年 1610)에 정신이 고절을 상(上)에게 진언하니 비옥(緋玉 : 당상관의 관복)에 승탁함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先生이 더욱 나아가지 않고 정사년(丁巳年 1617)에 군소가 광해군(光海君)을 중용하여 폐모론(廢母論)을 제창함에 무오년(戊午年 1618) 겨울에 先生이 선유봉에서 온 집안이 김포(金浦)로 들어가고 삼강(三綱)이 멸하였다는 한탄을 그치지 않았고, 아들 돈오(惇五) 또한 벼슬을 사양하니 先生의 가르침을 따름이었다.

先生은 어지러운 나라를 버리고 강호(江湖)에 숨었으나 더욱 들어와 비록 친구를 만나도 문안하는 이외에 한마디도 시사(時事)에 미치지 않고 밤이면 천지를 부양하여 한탄할 뿐이라 이웃 사람도 또한 그 얼굴을 보기 드물었으나 동리에 사나운 젊은이들이 효제에 감탄된 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한다.

임술년(壬戌年 1622) 봄에 先生이 병환이 심하지 않아서 여러 아들에게 써보이기를 “백씨가 임중에 중용(中庸)의 도를 말하여 근절하였으므로 내일 생에 복용하여 비록 내 힘이 높은 지위에 올라 심신(心身)이 나타남은 없으나 거의 돌아간 형님의 부탁을 저버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백옥(伯玉)의 지비지년(知非之年 나이 50세를 일컫는 말)이 지나고 내 사친하는 도리를 다하여 본디로 돌아간다.”하고 이에 냉절(冷節 한식)에 선묘에 하직하고 배로 서호(西湖)에 돌아와 가묘에 배알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운명하니 곧 천계(天啓) 2년(1622) 광해군 14) 9월 24일이요. 그 낳던 가정(嘉靖) 무오(戊午 1558) 명종 13)와는 향년이 65세이다.

그해 10월 28일 모갑(某甲)에 적성현(積城縣) 서쪽 수정산(水晶山) 술향(戌向)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생이 직접 잡은 뿔자리였다.

처음 장사에서 반궤(返机)할 때까지 사방에서 들은이로 처사는 집에서 서로 조상하고 알고지낸 어진 사대부들은 의복과 물품으로 부의하고 만장(輓章)과 제문(祭文)을 지어 조문하였다.

아아! 선생의 도는 효제(孝悌)에 근본하였으므로 들어와 사친우형하고 나아가 사군치민(事君治民)함에 각각 힘을 다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고 사생에 즈음

하여 형제 서로 권면함이 증용뿐이었으니 그 덕에 젖고 부지런함이 죽을때까지 풀리지 않음이 어떠한가? 선생이 예학(禮學)에 있어 더욱 조심하였으므로 관혼 상제에 반드시 의례를 본으로 하고 사마(司馬)氏의 가례(家禮)를 참작하여 분재 함에 이르러서는 설맹상(薛孟嘗 : 맹상은 후한 설포(薛包)의 자. 형제들과 재산을 나눌 때 자신은 못쓰게 된 것만 차지하고 좋은 것은 형제에게 주었다고 한다.)의 한대로 하였으니 대체 평생에 조그만 물건이라도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하였으니 그 지킴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선생이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통하고 그 여가에 천문(天文), 지리(地理), 율역(律曆), 병기(兵機)에 힘을 써서 그 조예가 깊었으니 이 과연 이 사회와 생민에게 뜻이 없었던 것이겠는가? 선생의 재주와 학문으로 마침내 펴지 못하고 다만 그 몸만 독선하였으니 어찌 때만나지 못하였다 하지 않겠는가? 처음 선생이 삼청동(三清洞) 백련봉(白蓮峯) 아래 살아 이내 연봉(蓮峯)이라 자호(自號)하니 그 속세를 벗어나려는 뜻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년에 벽에 쓰기를 “마음을 글에 두어 문밖을 보지 않고 담백하게 하는 일이 없어 속세를 벗어나다. 먹을 것이 없어도 즐겨 주림을 잊고 자연에 따라가니 만고에 청풍이다.” 하였으니 이는 선생이 스스로 그 진심을 묘사한 것이다.

한구암명길(韓久庵鳴吉 : 백겸(百謙))이 일찍이 선생을 논하여 말하기를, “李某는 명도(明道)를 잘 배운 이라”하고 여헌장선생(旅軒張先生 : 현광(顯光))은 또한 말하기를 “양금미옥(良金美玉)의 바탕으로 견고각려하는 학문을 이루었다”하니 아는 이 지언(知言)이라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서유자(徐孺子)와 도원량(陶元亮)으로 스스로 기하였으니 어찌 철인(哲人)의 자지명(自知明)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나는 생각하건대 고치지 못할 것이라 하노라.

天啓三年 계해년(癸亥年 1623 인조 1)에 연신(筵臣) 정경세(鄭經世)의 건청으로 선생(先生)에게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에 추증하였다. 계유년(癸酉年 1633 인조 11)에 향교동(鄕校洞) 제현이 先生의 지행을 예조에 표백하여 임금이 정려를 특명하고 “효자삼세(孝子三世)”라 사액(賜額)하니 장하다! 예전에 없던 일이다.

공의 초취(初娶)는 양천 허씨(陽川許氏)로 지평 시(時)의 손녀이자 참봉 진(禛)의 따님이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지낸 돈오(惇五)이다. 후취는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승지 철(鐵)의 따님인데, 무오사화(戊午士禍) 때의 명신(名臣) 증 참판 목(穆)의 증손녀이다. 슬하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은 돈서(惇敍)·감찰 돈실(惇實)·병조 정랑 돈림(惇臨)이고, 딸은 대군사부(大君師傅) 조수항(趙壽恒)에게 출가하였다.

돈오는 군수 김태국(金泰國)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정축년(丁丑年 1637 인조 15) 난리 때 부부가 함께 죽었는데, 좌승지에 추증되고 부역을 면제받고 열너문을 하사받았다. 슬하에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후수(后洙)·현감 후백(后白)·후면(后勉)·진사 후성(后晟)이고, 딸은 나후삼(羅后三)에게 출가하였다.

돈서는 승지 이정협(李廷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후강(后絳)·후방(后昉)·진사 후항(后沆)·후잠(后潛)이고, 딸은 이지오(李枝梧)에게 출가하였다.

돈실은 사인(士人) 이수인(李秀寅)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낳았는데, 아들은 후번(后藩)이고, 딸 둘은 허시(許翊)와 박명원(朴明遠)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돈림은 처음에 판부사 조경(趙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생원 후정(后定)·후평(后平)·후창(后昌)이며, 딸은 이사성(李師聖)에게 출가하였다. 다시 증 참의 이역(李潑)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조수항은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람으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양(養)·항(沆)·황(況)이며, 딸은 구봉양(具鳳陽)에게 출가하였다. 사손(嗣孫) 후수(后洙)는 아들이 없어서 동생 후면의 아들 상하(相夏)를 후사로 삼아 선생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내외의 증(曾)·현손(玄孫)이 많아서 다 기재하지 않는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효성스런 성품에, 학문으로 더욱 창성하였고,
심오한 학문에, 그 강직함 한결같았네.
벼슬할 때나 은거할 때나, 깨끗이 나아가고 물러났으니,
굳이 깊은 산림에 들어가야, 마음속이 시원하리오.
백련봉 홀로 빼어나고, 서호는 길이 흐른다네.
선생이 시종 그 사이에서 소요하였으니,
한나라 유도(有道)에 짝하여 역사에 남으리라.

용주유고(龍洲遺稿)

〈다음호에 계속〉

충정 李貴공의 인조반정反正 전후와 이괄의 난亂 서막

◆국역 이충정공장소 연구소
이지희(李枝熙)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형 임해군을 1609년에 죽이고, 아버지[宣祖]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모후(母后)에게 옮겨서 폐위할 방법을 생각하되, 못하는 행동이 없었다. 북인당과 이이첨(李爾瞻) 등은 그 뜻에 맞춰서 정인홍(鄭仁弘)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마침 서얼 박응서(朴應犀)와 서양갑(徐羊甲) 등이 도당을 규합하여 사람을 죽이고 말을 빼앗다가 옥에 갇혀 장차 죽게 되었다.

이이첨은 죽을 상황에서 삶을 구하는 것으로 몰래 박응서를 피어, ‘선조 임금의 장인이자 인목대비의 부친(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과 더불어 대군(大君: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기로 모의하였다.’고 스스로 무고하게 하였다. 그래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에 있는 충정공(李貴)의 묘 앞에서

서 옥사가 크게 일어나 연흥 및 그와 친했던 여러 재신(宰臣)이 일시에 체포되었는데, 광해군이 장차 父王의 장인 김제남을 먼저 극형에 처치하려 했다.

충정공(忠定公 이귀, 1557~1633)은 이를 듣고 곧 10대에 동문수학한 죽마고우인 한음(漢陰 이덕형, 1561~1613) 영의정에게 편지하기를, “고금 천하에 어찌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식을 위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옥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인목대비를 폐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옥사를 구제하지 못한다면 폐모할 때에는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대신인 한음이 답하기를, “친구의 말이 당연하나, 사세가 불편하니 어찌 하겠소.”하였다.

공은 답하기를, “옛날부터 임금과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두 사세가 불편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하니, 한음 공은 충정공의 말에 깊이 탄복하였으나 쓰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연흥부원군 김제남이 형벌을 당한 후에야 여러 관원을 인솔하고 따님인 자전(慈殿: 인목대비)에게 문안한 다음 상복을 지어 바쳤다. 그리고 ‘아들(광해군)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의리가 없다.’는 뜻과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는 것으로써 간언하여 아뢰고, 그 아들 이여규(如圭)를 보내 광해王에게 올릴 계초(啓草)를 충정공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전일의 말을 행하지 못했으나, 이 계사(啓辭)로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소?”

기미년(1619, 광해군 11년) 봄. 충정(이귀)공은 귀양 간 강원도 이천(伊川) 귀양(1616~1618년)길에서 풀려 장차 돌아오게 되었다.

큰아들 이시백(李時白)이 행차의 방향을 말리면서, “시국이 날로 점점 위태롭고 급박해지니, 만약 넘어짐을 붙잡기로 계획한다면[反正을 계획] 강원도 북단 안협(임진왜란 1년 전 忠定公 이귀가 피란을 대비해 명종(明宗) 임금의 능인 康陵 참봉으로 있을 때 하인 두 명을 보내 마련해둔 농토와 집)¹⁾ 시골에 그대로 머물러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였으나, 공은 이르기를, “서울에 올라가는 것만 못하다. 기회를 얻어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하고, 그 말을 듣지 않

1) 『국역 이충정공장소』 제1권

고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고양(高陽) 원당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시백이 다시 산골로 들어가 몸을 감추도록 굳게 청하며 인마(人馬)까지 거느리고 왔으나, 夫人(정경부인 인동張씨)의 병환이 위중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임술년(1622, 광해군 14) 봄. 공은 부인의 병환으로 고양에서 신문(新門) 밖으로 와서 거처했는데, 4월에 부인은 마침내 별세하였다.

초상을 지낸 사흘 후에 신경진(申景禎)이 위문을 왔는데, 신경진은 공과 한번 만나본 정분밖에 없기에, 공은 이상하게 여겨 얼마 동안 앉아 이야기하다가 신경진이 “영공은 장차 서용된다면, 이때에 벼슬하겠습니까?”하니, 공은 희롱삼아 답하기를, “이때는 태평시대인데, 공은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하시오? 내가 마땅히 이로써 고변할 것이오.” 하였다.

신경진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고변하면 어떻게 하겠소?”하자, 공은 그 뜻을 알고 거의(擧義: 인조반정)할 단서를 약간 밝힌, 신경진 또한 본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들 이시백을 불러 곧 큰 계책을 함께 결정하였다.

또 친구 최기남의 아들 최명길(崔鳴吉)과 20대에 병사한 큰 사위의 동생 김자점(인조조정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효종 때 1652년 반역죄로 죽음이 내렸다.), 그리고 심기원(1644년 인조조정 좌의정을 지냈으나 반역죄로 능지처참을 당함) 등 여러 사람과 더불어 모의를 했는데, 같이 모의한 사람들이 혹 벼슬을 그만둔 자도 있고 혹은 선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에 제대로 힘이 되지 못할까 모두 염려하였다.

공은 1622년 가을 마침 황해도 평산 부사(平山府使, 방어사 겸직)에 제수되었으므로, 기밀을 살피고자 권력자 이이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이첨은 그 무리 한찬남과 함께 앉았다가 성균관 동기인 충정(이귀)공을 보고 흔쾌히 영접하며 이르기를, “유순익을 인해 공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인목대비 폐비 의논을 정지하였소.”하고, 이어 두세 번 치하하였다.

공은 드디어 임진강변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서(李曙)와 의논하고 겨울 사이에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 공은 이때에 방어사를 겸하였기에, 신경진을 군사 지휘관 중군(中軍)으로 삼고, 시기에 임해서 장수로 정하고자 계획을 하니, 신경진이 말하기를, “제가 이 계책을 위하여 평안도 우후를 면하려 하지만, 갑자기 평산

으로 부임한다면 남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으로 좋지 않는 기색을 남에게 보이고 같이 가지 않다가, 공의 독촉을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서로 그렇게 약속하였다.

공은 평산에 부임하여 재촉하는 뜻으로 치계(馳啓)하고 또 아들 서봉 이시방(李時邦)을 보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공들과 거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때 신경진(임진왜란 신립 장군의 아들로 무장)은 이미 평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단에서 이시방과 서로 만나 이서와 모여 자면서 계략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이시방이 서울에 오니, 광해조정의 영의정 박승종(朴承宗)이 과연 신경진의 종적을 의심하여 회계하기를, “신경진은 장수의 재주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온 집안이 화환을 겪은 후부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여 관서(關西)에도 부임하지 않고, 또 평산에도 부임하지 않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국가에 무슨 일이 있기를 요행으로 여겨 장차 딴 곳에 제 마음을 쾌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등은 오랑캐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장수가 제멋대로 날뎀을 근심합니다.” 하고, 이어서 변장(邊將)의 자리에 회피하기를 꾀한다고 계청하여, 효성령 별장(曉星嶺別將)으로 삼았다.

이시방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단기(單騎)로 즉시 돌아와 하루 만에 부친(66세 평산 방어사 이귀)에게 달려가서 연유를 고하였다.

그 후 연평(이귀)공은 심기원을 부관으로 청하여 평산에 같이 있으면서 계책을 협의하고, 최명길·김자점은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일을 같이 주선하였다. 그리고 도원수 한준겸(韓浚謙 인조의 장인)에게 가서 그 뜻을 약간 통하고, (또 다섯째 막내아들 이시형²⁾의 장인으로 사돈지간이 되는) 황해도감사 이명(李溟

2) 《숙종실록》 2년 병진(1676) 6월 13일(갑자) 02-06-13[02]

경상도 암행 어사 권유의 서계로 포폄을 행하다 경상도 암행어사(暗行御史) 권유(權愈)가 들어와서 서계(書啓)하여,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이시형(李時衡)은 청백(清白)한 지조가 이웃 진(鎭)의 모범으로 삼는 바가 되고 사졸(士卒)이 모두 이르기를, ‘상국(相國: 영의정 이시백)이 <훌륭한> 동생이 있다.’ 고까지 하였으니, 대저 이시형은 바로 고(故)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의 서계(庶弟: 서동생)인데, 이시백의 청간(淸簡)함은 국인(國人)이 아는 바이기 때문이다.

1570~1648)³⁾과 더불어 국난에 함께 나아갈 뜻으로써 약속하였다.

1622년 겨울 12월에 공은 방어사(防禦使)로서 소속 휘하의 군사를 모조리 출동시켜 호랑이 사냥한다는 명칭을 붙이고 홍의동에 모아 장단 방어사 이서와 더불어 장차 합세하여 거사하려 하였다. 그런데 유천기의 고변으로 화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광해군의 처남으로 권력자 유희분(柳希奮)과 당시 영의정 박승종(朴承宗) 등의 주선을 힘입어 파직에 그치고 말았다.

공은 파직당한 후에 강원도 안협(安峽) 농장으로 돌아갔는데, 장차 때를 기다려서 일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먼저 이시방과 심기원을 함께 서울로 보내서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시방 등이 황해도 토산(兎山)에 이르러 길가에서 두 집의 종(servant)을 만났는데, 국문하라고 청한 계초(啓草)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토산에 머물게 하고 사람을 보내 공에게 통보하였다.

충정공은 즉시 경성을 향해 출발하며 장단에 도착하니 밤이 벌써 새벽이 다 되었다. 이시방에게 붓을 잡게 하여 삼부자의 원정초(元情草)를 써서 각자 지니고 떠났는데, 몇 리를 못 가서 도로 정계(停啓)하였다는 기별이 들렸다.

그래서 충정공은 경성으로 들어온 후에, ‘대론(臺論: 검찰 탄핵)은 비록 정지되었으나 여러 의심이 풀리지 않았으니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상소문이 들어갔으나 오래도록 회보가 없었다.

공은 다섯 아들 중 세 아들(시백·시담·시방)을 거느리고 대궐 밖에서 거의 두 달이나 명을 기다렸다. 이로써 의심을 없앨 바탕을 삼는 한편 제공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일을 도모하게 하여 거사할 기일을 빨리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해조(該曹)에서 품계(稟啓)하기를, “이시형은 작은 한 무부(武夫)로서 탐풍(貪風)이 점점 성해지는 날을 당하여 홀로 청렴결백한 행실을 힘쓰니, 마땅히 특별히 표창하여 발탁(拔擢)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하였는데, 수령(守令)으로 올려 주라고 명하였다.

3) 전주이씨 세종대왕의 형님 효령대군의 자손으로 과거급제 후 여러 곳의 감사를 지냈다. 법무장관·호조판서 역임, 사위는 다대포 첨사(僉使) 이시형(李時衡)이다. 이시형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은 급제 이신(李愼)과 급제 이순(李詢)이고, 사위는 민경(閔璟)이다.

이때 주상(主上 : 인조)은 백금(거사자금)을 내어 심기원 등 여러 사람을 시켜서 이미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집결하게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웠으므로, 또 최정예부대인 훈련도감병(都監兵 : 광해군 경호 병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써 걱정하였다.

충정공은 1608년부터 함흥판관과 평안도 속천부사를 역임, 본디 지방관(1612년 평안도 삭주부사와 1615년 전라좌수사)을 지낸 궁궐 경호 대장 이흥립(李興立)⁴⁾과 같은 마을에 살아 서로 아는 교분이었으므로 직접 통하고자 했으나[公素與大將李興立. 有同里相知之分⁵⁾. 欲爲直通], 이흥립이 당시 영의정 박승종(朴承宗)과 혼인한 사돈 사이기에 말을 내기가 곤란하였다. 그래서 장유(張維)와 더불어 상의하고 그 아우 장신(張紳)을 시켜 일을 함께 하자는 뜻으로써 말하도록 했는데, 대개 장신은 바로 이흥립의 사위였다. 곧 이흥립과 더불어 장유의 집으로 모임을 약속하였다. 그 당시 함께 모의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위태롭게 여기고 감히 나아가

4) 《인조실록》 1623년 3월 25일

장유(4대문장의 한사람으로 효종의 장인)는 아뢰기를, “김류는 경호대장 이흥립을 부른 것을 신의 형제의 공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흥립은 이귀와 절친한 관계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신은 단지 그 군사 출동 시기만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金瑬以招興立爲臣兄弟之功, 此非實狀. 興立與李貴相切, 曾已聞知, 而臣則但言其師期而已, 臣何功之有?)”

5) 《연평일기(延平日記)》 권영대(權永大) : 성균관대학, 강의, 한국고전번역원(民推) 상임위원, 한학대사전 편찬 실장

반정공신(反正功臣) 이귀(李貴)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시말을 소상히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신익성(申翊聖)으로 영의정 흠(欽)의 아들이요,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남편이다. 그는 광해 때 폐모론(廢母論)을 적극 반대했고, 그 후 병자호란 때는 강경한 척화파(斥和派)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 《연평일기》는 이귀가 처음 신경진(申景禎)과 접촉, 아들 시백(時白)과 함께 거사(舉事)의 대책(大策)을 세우고, 최명길(崔鳴吉)·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 등과 함께 공모, 거사를 꾸민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거사에 안팎의 참여할 동지를 규합, 안으로는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을 포섭하고, 밖으로는 장단(長湍)으로부터 이서(李曙)의 군사를, 이천(伊川)으로부터 이중로(李重老)의 군사를 지원받아 홍제원(弘濟院)에서 김류(金瑬)의 군사와 합세, 창의문(彰義門)을 향해 진군하여 반정거사를 성공하고,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대비의 운허를 받아 능양군(綾陽君 인조)을 왕위에 올렸던 일들까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권영대(權永大), 1971

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드디어 이홍립이 직접 쓴 편지를 장단 (방어사 겸) 부사 이서와 강원도 이천 부사 이중로(李重老)에게 전하니, 두 사람은 이 편지를 보고 3월 13일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

충정(이귀)공은 여러 공들에게 이르기를,
“이때의 대장은 나같이 노쇠한 자(67세)가 할 직임이 아니오. 김류(53세)는 본디 장수의 물망이 있었으니, 잘 통솔할 수 있을 것이오.”
하니, 여러 사람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이날 밤 2경에 홍제원(弘濟院)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이괄(李适)이 1623년 광해조정의 함경도 사령관인 북병사(北兵使)로서 미처 부임하지 못했는데, 그 군관 20여 인을 인솔하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 공도 김자점·송영망(宋英望)·한교 등과 함께 각각 모집한 군사 수백여 명을 거느리고 약속대로 가서 모였다.

조금 지나서 장유가 와서 전하기를, “어떤 사람이 반정을 고변하여 벌써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체포하려는 군사가 사방으로 나섰는데, 경호실 제2인자인 도감중군(都監中軍) 이확(李廓)이 포수 수백 명을 거느리고 창의문(彰義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 의군(義軍)이 경유하여 들어 왔던 곳인 창의문(彰義門)

이때 약속한 모든 군사는 태반이나 이르지 않았고, 장단 군사 또한 오지 않았다. 다만 수백 명 오합지졸로서 체통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이 기별을 듣자 모두 두려움을 품어 장차 흩어지려 하였다.

67세의 이귀(李貴) 충정공은 37세의 광해정권 북병사 이괄의 손을 잡고 귀에 대고 말하기를, “주저주저하는 대장 53세의 김류가 미처 오지 않고,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영공(令公 이괄)이 대장이 되어야 군사의 마음을 진압할 수 있을 것시오. 나는 평소 무장이 아니라 군사의 일을 익히지 못했으므로 급작스러운 때에 힘이 되기 어려울 것시오.” 하고, 드디어 이괄(당시 37세, 1587~1624)로 大將을 삼고 말하기를, “나(67세 李貴, 1557~1633)로부터 이하로 그대의 통제를 어기는 자는 목을 베시오.”하고, 모병(募兵)을 거느리고 벌여 서서 아 들보다도 어린 자신이 선택한 대장한테 절하였다.

그러자 이괄은 혼연히 따랐다. 이괄은 곧 군관을 불러서 써놓았던 의(義) 자 수백 조각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입은 옷 후면에 붙여 표시하도록 했다.

밤중이 지나 늦게, 김류가 심기원·원두표(元斗杓) 등 여러 사람과 모화관(慕華館)에 모여서 전령을 시켜 이괄을 부르니, 이괄은 군법을 어긴 김류에게 크게 노하여 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돌파를 위하여 충정공은 힘껏 권하여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괄은 처음 약속대로 대장을 김류에게 양보하고 대오를 정돈하여 사현(沙峴: 모래내)을 넘어 홍제원에 이르니, 장단 군사가 잇달아 이르고 심기원이 인솔한 가동(家僮)·무사가 또한 2백여 인이나 되어, 군사의 형세가 조금 떨치었다. 그래서 심기원·김자점·최명길(崔鳴吉)·송영남·신경유(申景裕) 등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창의문에 들이닥치게 했더니, 선전관이 문 잠그는 것을 적간(摘奸)하려 나왔기에 앞장선 군사가 쳐서 베었다. 성중에 이르러 북을 치고 떠들면서 부르짖으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바로 창덕궁 궐문 밖에 이르니, 大將 이홍립이 도감(都監)의 군사를 거느리고 궐문 동구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군사는 반드시 나의 말 머리 돌림을 보아서 활을 쏘라. [諸軍必看吾馬(my horse)回首而發矢(shoot an arrow)]”하고, 마침내 말을 돌리지 않았으며, 참모장 이확도 후퇴하여 다리 가에 둔치고 교전하지 않았다.

당시 영의정 박승중·이이첨 등 모든 사람이 다 비국에 모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먼저 국청(鞫廳)을 치자고 하였으나, 반정하는 일을 빨리 정하여야 하기 때문

에 앞 군사가 곧장 광해왕의 자리 인정전(仁政殿)으로 들어가니, 광해군과 세자(世子) 이지(祚)는 벌써 달아나 버렸다.

주상(선조의 손자 능양군 인조)은 대비의 책봉 명을 미처 받지 못한 까닭에 다만 전폐(殿陛) 위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 모든 신하를 보았다. 이때에 폐조(廢朝) 광해와 세자 양궁(兩宮)은 모두 간 곳을 모르고 모든 적신도 미처 잡지 못했다.

도승지 이덕형(한음이 아닌 李德潤)과 보덕 윤지경(尹知敬)·주서 이행원(李行遠) 등은 입직하다가 와서 보고, 이덕형(한산 이씨로 사우당 이시담의 장인 동생)과 윤지경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꼳꼳하게 서서 절하지 않다가 반정의 의거임을 안 다음에야 비로소 숙배하였다. 이 두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행하는 바에 실수가 없었으니 가상하다고 하겠다. 조금 뒤에 병조 판서 권진(權縉)과 참판 박정길(朴鼎吉)이 먼저 스스로 쥬내에 들어와 그 직무를 다스렸으니, 대개 공을 세워서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시 명패(命牌)를 내어 (해고)이광정(李光庭: 연평 이귀 공의 외 6촌 형)·(월사)이정귀(李廷龜: 연평공의 7촌 숙) 등 여러 사람을 부르니, 새벽을 알리는 과루(罷漏)를 칠 시각이 되었다. 서봉 이시방이 빨리 가서 자전(선조의 정비인 인목대비)에게 문안하기를 계청하니, 상(인조)은 김자점에게 명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다.

김자점 등이 빨리 경운궁(慶運宮: 지금 덕수궁)에 이르러 수문장을 불러 문을 열게 하니, 유순익(柳舜翼)이 분병조 참판으로서 나와 맞이했는데, 대개 거의(舉義)하기 하루 전에 자전을 받들기 위하여 입직하게 하였던 것이다. 곧 대문에 나아가 승전 내관을 불러내어 반정한다는 뜻으로써 아뢰었다. 대비는 하교하기를, “10년동안 유폐되어 있어도 어느 사람 하나 와서 묻는 이가 없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중에 승지와 사관(史官)도 없이 이같이 직접 아뢰느냐. (거짓으로)나의 정명공주는 이미 죽어서 담 밑에 묻었다.”하고, 또 온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들이게 하였다. 김자점 등이 곧 승지 민호를 불러서 또 계달(啓達)하였으나 끝내 하답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이런 뜻으로써 회계하였다.

충정공은 서궁(인목대비 거처인 지금의 덕수궁)으로 나아가 쥬문에서 통곡하고 승전 내관을 불러 사정을 아뢰 다음 모시고 가기를 청하니, 자전은 답하기를, “누

가 이 거사를 하고 곧 받들어 가기를 청하느냐?” 하며, 도리어 진노하는 하교가 있었다. 이때 승지 홍서봉(洪瑞鳳)이 문안차 와서 아뢰었는데, 대비는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승지는 누구의 명령으로 내게 심부름을 왔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 왕 자리에 선 것인데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 광해군은 몸을 피해서 서민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민가에 숨었는데 고발한 자가 있었으므로, 진선문(進善門) 밖에 잡아 가두고 자전(인목대비)의 처치를 기다렸다. 상은 곧 가마를 뒤따르게 하고 서궁에 이르렀다. 이때 폐동궁(廢東宮 : 이지)이 또 잡혀왔기에 한 곳에 유치하고 기다리게 하였다.

상(능양군으로 인조가 되기 전)이 서궁(덕수궁)에 나아간 후에도 자전은 오히려 노여움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상(능양군)은 땅에 엎드려 대죄하였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자전은 또 전국보(傳國寶 : 國璽(국새))를 들이라고 재촉하였다.

충정 이귀공은 대답하기를, “이때에 전국보(임금의 상징인 국새)를 여주(女主)께서 장차 무엇에 쓸 것입니까? 신의 머리가 쪼개질지언정 국보(국새 : 나라의 도장)는 드릴 수 없습니다.”하였다.

그리하여 자전은 하교하기를, “오늘날 하는 일을 내가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하니, 써서 들이라.” 하였다.

공은 김대덕(金大德)에게 붓을 잡게 하고 전말을 갖추어 써서 아뢰었다. 또 둘러대는 말로, “도원수 한준겸이 사방의 의병을 거느리고 또한 장차 와서 모일 것입니다.”하였다. 자전은 친히 내정에 서서 시녀를 시켜 공에게 말을 전하기를, “대장 이귀(李貴)이 무엇 때문에 나(25세의 왕비인 인목대비)를 의심하느냐. 내가 친자식(여덟 살의 영창대군을 광해정권에서 죽인 후)이 있느냐? 국보(국새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를 바치라고 재촉한 것은 국체(國體)를 중히 하고자 함이요, 별다른 뜻은 없소.”하였다.

이날 저녁 왕이 거의에 앉았었던 모든 대장들을 탐전에 모아놓고 일을 토의할 적에, 충정 李貴공은 아뢰기를, “어제의 공로는 군을 통솔한 현역 함경도 사령관 북병사 이괄(37세)이 가장 많으니, 마땅히 병조 판서(국방장관)를 시켜야 됩니다.” 하니, 이괄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다만 거사에 임해 피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사할 때 김류가 대장으로서 기약된 시간에 이르지 않자, 李貴가 신으로 대장 지휘를 대신하게 하였으므로 김류를 뒤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군법에 의해 목을 베려 했는데 李貴가 힘써 말렸기 때문에 참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온 좌중이 모두 실색하였다.

그 뒤에 상(인조)이 명하여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갖추어 거의(學義)한 장수와 병사들을 모화관(慕華館)에서 대접하여 위로하였다.

앉는 순서(坐次)를 정할 때 이귀 공은 호위대장으로 북쪽에 앉고 김류는 의병대장으로 공의 상석에 앉고, 이괄 이하는 모두 동서쪽에 나누어 앉으려 하였다.

그런데 이괄이 자신이 김류의 아래에 앉는 것을 혐의쩍게 여기고는 마침내 버티고 서서 김류를 흘려보며 말하기를, “나는 (함경도 사령관) 높은 관질이다. 이귀 대장은 이미 임금으로부터 절제의 명을 받았으니, 우리들이 상석인 북쪽에 앉는 것이 가하지만, 김 대장은 일찍이 절제의 명이 없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 우리의 상석에 앉는가?”하고, 발끈 노기를 띠었다.

공이 부드러운 말로 이를 해명하고 곧바로 술을 따라 별주로 마시자, 이괄이 노기를 머금고 자리에 나아갔다.

김류와는 사사건건 서로 어긋났으며, 또 이괄의 아들은 이미 거의에 참여했는데도 벼슬을 받지 못하였고, 그의 아우는 문관으로서 또한 훈적에 기록되지 못하고 도리어 김류의 아들인 김경징(金慶徵: 13년 후 병자호란 때 강화도의 사령관으로 도망을 간 죄로 사형 당함)의 아래에 처하였다가 곧 이괄을 평안도 사령관 서쪽변방으로 보내졌다.

그리하여 이괄이 잔뜩 분을 쌓아 다음해 갑자년(1624년)의 이괄의 변란을 양성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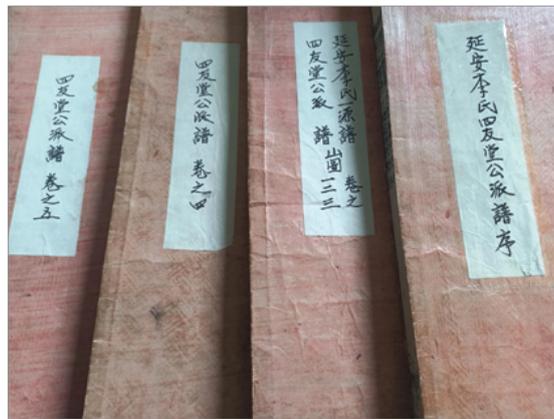
족보(族譜 · family tree)에는 많은 보물이 들어 있다

◆ 사우당(호판공)·해주공 증중회장
이지희(李枝熙)



사우당공 장남 해주목사 이징 공이 撰한 부친의 행장[四友堂公 行狀]¹⁾이 정축보라는 족보에 들어 있다.

1907년 서북대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영남을 대표한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과 애국계몽운동을 함께 한 호남대표 우국지사 이채 선생이 사우당공의 9세손으로 《사우당공과보》 정축보(丁丑譜)³⁾ 다섯권의 서문을 쓰고 여산 진사동에서 발행했다. 그 정축보(1937년 족보) 5권 중에서 두 가지 보물을 우선 꺼낸다.



- 1) 정축년(1937) 여산 진사동에서 만든 사우당공과 정축보 이지희 증조부(李祖明님) 소장본
- 2) 가람 이병기 서울대 국문학 교수의 부친
- 3) 昭和(日王 쇼와, 히로히토의 연호) 12년 指令제626호 허가, 소화12년7월 30일 발행, 1937년

첫째가 인조조정 병조판서와 효종조 영의정[首相]을 지낸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 享年 80세)공이 서거(逝去1660년)하기 3년 전 세 살 아래인 익산(금마) 아우 사우당(이시담 大邱시장 光州 시장 등 역임 享年 82세)과의 작별의 시를 남겨 금마 사우당 벽에 걸었다.

연양부원군 宗家[연풍군 이조판서 이갑(李埰)의 손자 이풍 종손에게 해주공의 4대손 이우응 공이 위로의 서찰을 보냄]가 200년 전 불이나 상자속의 글들이 다 타버리고, 사우당 집까지도 이 정축년 족보 속의 詩 외에는 많은 글들이 책을 엮기 전에 불타 보존이 되지 못했다.

이별의 아픔을 시로써 아우에게 보낸다 贈別舍弟四友堂

어제는 그대를 보내며 돌아오고
 오늘 아침은 호산(壺山 : 여산군의 별칭)을 떠났네.
 호산(여산)⁴⁾을 또 저 멀리 두고, 고개 돌려 눈물만 흘린다.
 적막한 은산(恩山)의 객사에는 눈보라가 어지럽게 휘날린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이별을 한탄하는가.
 자네와 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望八]라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만 가네.
 원하노니 피지 못한 꽃을 동생이 좇아서 형의 얼굴을 기쁘게 열어주게나.

丁酉 孟冬 鈞巖 兄稿[1657년 초겨울 형인 조암(이시백)공이 시를 부친다]

둘째로 《사우당공과보》인 정축보 첫 권인 序권에서 행장을 발췌해 11세손 지희가 번역하여 올린다. 해주공(익산묘소)은 이 행장(行狀)을 친구인 우암 송시열⁵⁾공과 동춘당 송준길 공에게 주면서 부친 사우당공의 비문을 부탁했다. 이 비문들

4) 우암 송시열 선생은 여산군 황산(강경)에 있는 竹林書院(황산서원이 임금의 사액을 받아 賜額서원이 되면서 죽림으로 바뀜)을 중수 하면서 쓴 중수기에 여산군수와 전라감사가 왔음을 기록하면서 그 중수기(宋子大典)에도 여산군수를 호산군수라고 호칭함.

5) 宋子라고 칭하는 우암(1607~1689) 선생은 해주목사 이징(연평공의 손자, 1604~1680) 공에게 보내는 서찰에서 자신의 고민인 길보 윤선거(1610~1669, 소론의 영수 명재 윤증의 父) 공과의 일을 언급했다.

이 『국역 서봉일기』 500부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200년 전 공주 성봉서원(盛峰書院, 一名 성봉서사)에 4부자(연평공과 세 자제분들)의 위패(位牌)를 같은 서원에 모시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나(해주목사 이징)의 先公(부친) 이시담(1584~1665, 향년 82세)의 字는 자현이고, 호는 사우당이다.

연안 이씨는 당나라 황실 중랑장 이무(李茂) 장군이 서기 660년 소정방과 신라에 출병 백제를 평정한 뒤 唐(당)나라(서기 618~907)로 귀국치 않고 신라에서 벼슬하여 신라 제29대 무열왕으로부터 연안백(伯), 문무왕으로부터 연안후(侯)의 작위(爵位 : noble title)와 식읍으로 받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고려 의종(1127~1173) 때 왕실의 재정을 책임진 판소부감 이현려(李賢謨 : 이 지희의 25대조) 公은 송나라에 3년간 다녀온 性理學者로 《삼국사기》를 쓴 문열공 김부식(1075~1151)의 학통을 계승하고, 문성공 안향에게 이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 연안이씨 4개 파 중 하나인 판사공파 중시조다. 이후 4대를 내려와 사우당 공의 10대조 이효신 公이 고려의 판도판서가 되었다.

사우당공의 9대 조부 이광(李匡)⁷⁾ 공은 고려조정의 사복시정(정3품)을 지냈으며, 贈 병조판서로 함경도 안변에 묘소(판사공파로 처음 있는 實墓다)와 11세손 이우신 참판공이 쓴 비석이 있다.

8대 조부 이종무(李宗茂) 公은 조선 태조(이성계) 임금을 호위한 임주(임천 : 부여)⁸⁾부사로 좌찬성에 증직된 태조 원종공신이며 북쪽 함경도 안변에 묘소와 11세손 이철보⁹⁾ 판서공이 쓴 비석이 있다.

7대 조부 이회림(1451년 卒) 公이 태종시기부터 원종공신으로 대호군과 세종

6) 연안이씨 판사공파 대보 首卷

7) 祖 李匡 공과 똑같은 同名異人이 태조의 창업공신으로 되어 있다.

8) 저현공 대중회 발간 《역주 저현선생문집》 1484년에 쓴 행장에는 임주부사로 되어 있고, 1743년에 쓴 墓表에는 공조전서로 서로 다름.

9) 좌의정 이복원 공과 영의정 이시수 공과 대제학 이만수 공은 해주공 3남(경저) 外孫女의 아들과 손자들이다.

시기 전염병과 빈민을 구제하는 동활인(活人) 원장[提學]으로 좌의정에 증직 되었으며 쌍문동에 묘소가 있다.

6대조 휘 이석형 公[石亨, 정경부인 연일(오천 : 영일) 鄭씨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증손녀로 용인의 묘역이 같다]이니 좌리공신 연성부원군으로 봉해지고, 시(諡)호는 문강(文康)이고, 호는 저헌(1415~1477)이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세종조에서 한해에 생원, 진사, 문과 3과에서 장원, (세종시대 14세부터 일곱 번 장원했다.) 사람들의 이목을 환하게 했다(세종께서 正6품을 제수했다. 1백년 후학인 이퇴계는 9품을 받았고 이율곡도 종 6품을 받았다. 4대손 월사 이정귀도 9품을 연평 이귀도 9품을 받았다. 과거 급제자 통상적으로 첫 출사에 9품을 받음). 1441년(세종 23년) 한해에 연거푸 3장원은 조선 500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저헌 문강 이석형(1415~1477) 公은 태종 15년 1415년 박언의 따님인 贈 정경부인 춘천박씨 소생이다. 세종·문종(文宗, 1450~1452)·단종(端宗, 1452~1455) 세 조정에서 집현전(集賢殿) 교리와 직제학을 역임, 1455년 세조(수양대군 : 世祖, 1455~1468)가 즉위한 윤 6월 41세에 전라도 관찰사로 나아가고, 사헌부 대사헌, 한성판윤(서울시장) 7년과 8도 도체찰사로서 전국의 주민등록을 파악하여 병력 및 세수 등을 위한 기본을 형성키 위한 호패법(號牌法)을 관장 하였으며, 세조의 명신(名臣)으로 기록되었다.

1468년 예종(睿宗, 1468~1469)의 부왕 세조 부고(訃告)사신 공조판서로 중국 명나라(Ming dynasty, 1368~1644)에 다녀와서 정1품 성균관의 장관에 제수되었다. 1469년 성종 순성좌리공신으로 ‘성리학을 정밀하게 궁구했다[精研性理之學]’는 교서를 내리고 연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성리학(性理學)의 교과서인 사서(四書)의 제일 첫 책, 《대학(大學)》을 풀어서 쓴 성학(聖學)서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21권¹⁰⁾을 1472년 찬술 성종(成宗)

10) 2022년 상하 2권으로 저헌학문연구소장 이지희가 국역하여 500질 1,000권을 출판함.

께 성군(聖君)이 되라며 올려서 말[馬] 한필을 하사 받았다.

일찍이 성종의 조부인 세조 조정에서 高麗말엽 포은 정몽주 선생과 양촌 권근 선생이 정한 유교경전 오경(五經)과 사서(四書)의 우리식 해독을 위한 구결(口訣)에 오류가 있기에, 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경(詩經)》은 정인지 공이 맡고, 신숙주 공은 《예기(禮記)》를 담당하고, 공자(孔子)와 제자들의 대화록인《논어(論語)》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토(吐)를 다는 구결(口訣: 현토)작업은 이석형 공이 하였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증손녀 초취(初娶) 오천정씨에서 1남을 낳고, 후취(後娶 고령박씨)에서 1남1녀를 낳았으며, 측실(妾) 소생이 1남1녀가 있다. 묘소와 사당(문강재)은 용인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문강공 저헌 이석형 6대조에서 3대를 내려와 증조부 정헌 이기 공은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문인으로 급제하여 청요 직인 사헌부 장령(검사장) 등에 진출했으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土禍)를 일으킨 간신배들의 미움을 샀으며, 1545년 을사사화(乙巳土禍) 일으킨 권간들의 술수로 선비들을 치죄하라는 문사낭청(問事郎廳)이 되어 항거하자 양주목사로 발령, 하세하셨다.

조부 贈 영의정 이정화 공은 두문불출 책을 보셨으나 벼슬을 못하시고, 4남인 연평부원군 李貴공의 벼슬로 증직을 받았고, 贈 정경부인 안동권씨(향년 91세, 화천군 권감¹²⁾의 증손녀) 사이에서 4남 3녀를 낳으시고 1558년 39세에 조졸하시어

11) 재종 아우 월사 이정귀 공이 쓴 신도비가 고양시 원당 묘역에 있다.

1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차옥(次玉). 아버지는 증추원부사 권극화(權克和)이다. 1444년(세종 26) 음보(蔭補)로 사직녹사에 등용되었고, 1450년 다시 사마시에 합격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주부로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책봉되었다. 1467년(세조 13) 동부승지·좌부승지·도승지를 차례로 역임했다. 도승지 재임시 사사로운 일로 사헌부의 서리를 패초(牌抄: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신하를 부름)했다 하여 탄핵받았다.(중략)1483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다시 화천군에 봉해졌다. 1485년 전라도 진휼사로 나아가 민정을 살폈다. 문과 출신이 아니면서 도승지가 된 인물로 거론된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양시 원당에 묻히셨다.

부친 연평부원군 李貴(1557~1633, 향년 77세) 공은 충정(忠定)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인조반정 정사공신 1등이다. 號는 목재이고, 字는 옥여이다.

인동(仁同) 장씨를 부인으로 취했으며, 정경부인 인동 장씨는 증 형조참판 장민 공의 따님으로 3남(영의정 이시백·충주목사 이시담(중2품)·호조판서 이시방) 4녀를 낳았다. 또 側室 창녕成씨에서 강화도 감목관 이시응과 다대포 첨사 이시형 2남과 1녀를 낳아서 5남5녀 10남매이다.

그 가운데가 사우당 이시담이니, 만력(萬曆: 명나라 신종황제의 연호) 갑신(1584)년 3월 26일이 생일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6세 때 능히 대자를 쓰고 오언시를 지었으며, 또 매화·대·포도를 잘 그렸는데, 격조가 특이하니 충정공(연평부원군 李貴)께서 매우 사랑하셨다.[公生而穎悟六歲能作大字及五子句詩又能畫梅竹葡萄竝有奇格忠定公鍾愛之] 장차 큰 그릇이 되게끔 자랐다.

공의 셋째 아버지인 贈 호조판서 자(資)공이 後嗣가 없으므로 충정공이 명령하여 양자로 가도록 하였다[命公爲後].

공이 양가 부모를 섬기기를 효도와 물질 양면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였다.

공이 인조반정 1등 원종공신이 됨으로, 양부는 가선대부 형조참판에 증직되고, 양가 어머니 해주 오씨[妣海州吳氏]도 정부인에 봉해졌다[封貞夫人]. 공이 2품직에 승급됨에 이르러 양 아버지(資: 고양시 원당의 묘소, 4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 묘역에 있는 묘소)께서도 자헌대부 호조판서[戶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 되니, 품관제도 보다 더 높히 승진되어 증 아경 참판 후에 정 2품 정경(正卿)에 증직된 것은 특별한 은덕이다.

사우당공은 계축년(1613년) 30세에 과거시험인 사마시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선비 사이에 이름이 나 있었다(5형제 중 과거급제는 四友堂 공이 유일하다).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패륜의 시기에 사우당공은 부친 충정공(이귀)을 고양군 시골집에서 봉양하며 10여년을 함께 기거하였다[公奉忠定公竝居于高陽之村庄十有餘年].

나[20세의 장남인 해주공(황해도 해주市長) 이징, 1604~1680 향년 77세]¹³⁾의 조부 충정(李貴)공께서는 조정의 기운이 쇠락해짐을 두려움과 통탄스럽게 여겨 바로잡을 것을 밤낮없이 마음 졸이며 원대한 계획을 꾀하였다.

충정공(李貴, 1557~1633)께서는 큰 아들 충익공의 뜻과 기개를 알기에 일찍이 그의 뜻을 시험해보니 충익공(李時白)이 거사는 불가하다¹⁴⁾며 뜻을 견지하였다[忠翼公持以不可]. 그러므로 차남 사우당공(李時聃)과 3남 연성군(李時昉)에게 명하였다. 사우당공이 형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대의로써 설득하고[諭以大義] 좌우로 계획을 세워 충익공이 부친 충정공께 충심을 고하였다.

13) 《승정원일기》 인조 8년 1630년8-03-26[12]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이조에서 인사 적임자 뽑는 일)에, 판서 정경세(鄭經世)와 참판 김수현(金壽賢)은 병이고, 참의 강석기(姜碩期)는 나왔고, 좌승지 박홍미는 나왔다. 병비(병조에서 인사발령)에, 검판서 이귀(李貴)는 나왔고, 참판 이경직(李景稷)은 병이고, 참의 조성립(趙誠立)은 인경궁에 입직 중이고, 참지 이명한(李明漢)은 나왔고, 우부승지 이기조는 나왔다. 이비(이조의 인사)가 정지한(鄭之罕)을 의주 부윤으로, 이성신(李省身)을 집의로, 윤황(尹煌)을 직장으로, 최유길(崔維吉)을 창성 도호부사(昌城都護府使)로, 진무성(陳武晟)을 구성 도호부사(龜城都護府使)로 삼았다.

병비(병조의 인사 적임자 선정)가 김신국(金薰國)을 중추부사(中樞府事)로, 한명익(韓明翼)을 세자익위사 사어(世子翊衛司司禦)로, 이정길(李井吉)을 세자익위사 익찬(世子翊衛司翊贊)으로, 강문성(姜文星)을 위솔(衛率)로, 이지유(李志裕)를 부솔(副率)로, 김광찬(金光燦)을 시직(侍直)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세마(洗馬)로, 남궁인(南宮戴)을 부호군(副護軍)으로, 홍유형(洪有炯)·홍이일(洪履一)·이인준(李仁俊)·이징(李澄)·이경원(李敬元)·이돈오(李敦五)·김광환(金光煥)·이이성(李以省)·이방익(李邦益)을 부사과(副司果)로 삼았다. 외직(外職)으로는 비덕생(斐德生)을 임치진관 만호(臨淄鎭管萬戶)로 삼았다.

14) 1. 우암 송시열《송자대전》「연양부원군 이시백 신도비」嘗以試公. 公持不可(이시백 “공이 안된다”하였다). 忠定至舉孟津之事曰. 今日讎母之變. 商受之所未有. 宗社之亡. 匪朝伊夕. 吾世祿之臣. 又與耕釣人有間矣.

2. 이궁익《연려실기술》 제23권 계해정사 「이연평행장」이귀가 세상을 바로잡을 뜻을 은밀히 지니고 있어서 일찍이 아들 시백을 시험하여 보니, 시백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귀가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하는 혁명시기)맹진(孟津)의 고사를 들어 말하기를, “오늘 대비를 폐한 변은 일찍이 상주(商紂)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 따라서 종묘사직이 망하는 것이 아침저녁에 닥쳤다. 나는 대대로 국록을 먹은 신하이니 밭 갈고 고기 낚던 사람과는 또 다르다.” 하고 부자가 드디어 함께 의논을 정하였다.

이로써 충정공(忠定公)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자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아는 사이라[父子知己]” 하시고, 밤 세워 같은 방에서 한마음으로 반정을 결심, 밝은 태양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종묘사직이 매우 다행스럽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각을 발표하고 계책을 빈틈없이 하였으나 집안의 경제력이 빈한하여 자력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나(해주공, 이징, 1604~1680)의 부친인 사우당(이시담, 1584~1665, 향년 82세)공은 양자로 들어간 양가(生家로는 셋째 아버지인 資公)의 재산(양가 모친 해주오씨가 부유함)을 거사 군자금으로 투입하여, 선비와 친구들 중 준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해와 달이 다시 밝아져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돌려놓았으니 아름답지 않은가!.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계해년(1623) 15년간 왕위에 있던 혼군 광해군을 축출한¹⁵⁾ 인조반정이 성공하였다.

15) 이지희 『昏君 光海君과 李貴의 君臣義理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提出 論文.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실무책임자 日本人 이나바이와 기치[稻葉岩吉]는 경성 총독부에 근무 시 1932년(쇼와7년) 교토대학박사학위 논문 『광해군시대의 만선관계』에서 “평산 절도사 이귀의 군대 500명이 이미 경성에 진주하며 광해군의 계모 인목대비와 밀약 광해군(이혼)을 묶어서 불속에 던져 죽였다[緋縛李璉投烈焰中以死]”라고 마치 이귀의 반정 군이 죽인 것으로 일단은 기술하고, 광해의 축출을 안타까워하며 조선은 저희 왕도 죽인다는 식을 유도, 해방 후 한국 논자들이 일제 植民史觀을 선도한 이나바이와기치의 그릇된 학설을 오늘까지 추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반정 후 昏君 광해군은 18년간 인조 조정의 보호 아래 철 따라 옷을 보내주며 천수(67세)를 다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대동야승』 中에 선조의 사위 신익성이 쓴 「연평(이귀의 작호)일기」(반정 일 새벽 덕수궁에 간 반정 대장 이귀) 공이 [둘째 아들 (사우당)이시담의 처숙부인 광해정권의 비서실장 도승지 이덕형(죽천)을 대동하고] 다시 (선조의 정비 영창대군의 모친 인목대비를 새로운 왕이 될 인조가 있는 창덕궁) 모셔가기를 간청하자, 대비는 답하기를, “죄인(罪人· 광해를 말함)의 부자와 이이첨의 부자 그리고 모든 간당을 모두 효시(목을 잘라 매단 후)한 뒤에야 (나를 10년 간 유폐시킨 이 공을) 나가겠노라.”하였다.

공은 대답하기를, “죄인(광해) 부자는 이미(15년간) 임금이 되었던 터이니 경솔히 처단(목을 쳐 죽일 수)할 수 없고, 이첨 부자 그리고 모든 간당들은 군병을 시켜 체포하고 있으니, 마땅히 품의 후에 처단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우당(이시담)공의 공훈을 정할 때, 大臣의 결재까지는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이름이 있었으나¹⁶⁾ [지천 최명길 공이 인조 임금께 자신의 동생의 정사공신 자리를 사양하면서 사우당 이시담도 같이 휩쓸리게 되었다.]사양하여 인조 임금이 가납하여 한 급 아래인 원종공신에 봉하였다.

사우당공은 대개 사람들이 부귀함이 크게 성대해짐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한다는 삼가 함의 격언을 지켜 한 가문의 지나친 빛남을 경계하였다. 염치를 알아 삼가한 것이다.

1622년 4월 낳아준 어머니 정경부인 인동 장씨의 상을 당하여 고양군 원당에 장례지내 탈상을 하고 조정에 나가므로 호조(戶曹)의 왕실 재물을 관리하는 내자시 6품직이 제수 되었다. 이어서 토지와 집과 노비를 하사하니 이는 특별히 사패(賜牌)의 규정에는 원종공신이 정사공신에 미치지 못하나 실지 훈공을 생각하여 비록 훈 급은 미치지 못했지만 신하를 아는 데는 임금(인조)의 안목만 함이 없으므로 1623년 반정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패(賜牌)를 풍족하게 내려줬다.

사우당공은 이에 감격하여 받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사헌부(검찰청)의 감찰(監察)로 발령, 이어서 사직서령 정 5품으로 전직되었다. 또 별도로 통정대부 정 3품에 승진되었다.

1625년(을축년) 남평 현감¹⁷⁾에 나아갔으나, 9월에 養 아버지(증 호조판서 이자:

16) 『인조실록』 인조 1년 계해(1623) 윤 10월 19일(을사) 최명길은 아뢰기를, “원훈(元勳:이귀·김류)이 있으니 신 같은 무리는 감히 간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제집에 있으면서 몰래 서로 모의한 자들이야 그 공의 경중을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시백과 이시방은 드러난 공로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나머지 자제들은 수효가 너무 많아 한 집안에서 공신이 서너 명이나 되기도 하니, 이는 복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시담·최혜길·신해 등은 처음에는 녹훈에 올랐으나 이때에 와서 모두 삭제되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길의 말이 매우 옳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명백히 처리한 뒤에야 못 사람들의 마음이 흠족하여 원망이 없게 될 것이다.

17) 『인조실록』 인조3년 1625년4월 25일 남평현감 이시담이 부임 하직인사

현재까지 고양 원당묘소, 生家로는 셋째 아버지) 상을 당하여[丁內¹⁸⁾艱於所後] 직을 내려놓았고, 1627년 상을 마치고 순창군수 발령을 받았다.

1630년 봄 순창군민이 역모를 범하여 군수가 파직 되었다. 이해에 다시 김제군수(부친 충정공이 30년 전 김제군수[김제 지음서원 배향] 역임함)에 발령되었다. 1633년(계유년) 충정(생부인 李貴 연평부원군)공이 향년77세로 逝去하셨다. 1635년 3년 상을 치르고 담양부사에 임명 되었다. 부임한 뒤 또 양가 어머니(해주오씨 : 고양 원당 묘소) 상을 당했다[丁外艱於所後].

사우당(이시담, 1584~1665) 공은 1622년부터 1635년 까지 전후 생가와 양가 부모님 네 분의 초상을 당하여 초상기간에 상복을 풀지 않아 척추에 병이 발생하였다.

하늘이 감복하여서 3년 상을 치르고, 정축년 1637년 다시 복직, 무인년(1638년) 경상도 대구부사(大邱市長)로 나아갔다. 임기가 만기되었으나 경상감사가 지방관 최고의 점수를 득하였기에 연임을 종용했으나 사양하였다. 1642년 여름 중추부사의 첨지(僉知)에 발령 받았다.

1642년 겨울 담양부사에 발령되어 만기 후에 1646년 봄에 능주목사¹⁹⁾에 제수되었다. 무자(1648)년 봄 병으로 체직되었고, 가을에 강릉부사로 발령 받았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으며, 또 광주목사(光州市長)로 발령 나서 임기 만료 후, 1652년(임진) 가을 첨지중추부사에 다시 발령 났다가 충주목사에 임명 되었다. 오래지 않아 병으로 체직되었다.

계묘년 만 80세가 되어 종2품(가선대부)로 승진, 인생 말년[桑榆末景]에 특별히 하사하셨다. 상감의 은혜에 반드시 상경하여 사은숙배하고자 했으나 병으로

18) 송강 정철과 포은 정몽주 선생은 內艱은 부친상이고, 外艱은 모친상으로 규정 했다는 것을 동춘당 송준길은 《동춘당집》 별집 3권에서 피력했다. 사우당공의 묘갈을 쓴 동춘당 송준길은 丁 內艱을 아버지 상으로 옳게 썼고, 우암 송시열은 사우당 묘표에 丁內艱을 어머니로 잘못 썼다. 고려대 심경호 교수 2025년 12월 프레스센터 발표 이후백 공 『신편신역 청련집』 564페이지 참조

19) 이 시기 부친 연평부원군의 후배인 은봉 안방준 선생이 능주에 기거하므로 부친의 유고를 전달하여 목재일기(노탈수사)의 원고를 전해주었다.

인하여 가지 못하고 지방관의 계통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을사년(1665) 정월 초에 병석에 누워 2월 초8일 정침에서 돌아가셨으니 향년 82세다. 조정에서 부고를 받고 특별히 자헌대부(정 2품)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세자좌빈객이라는 증직을 내리셨다.

4월 17일 공주 갑촌(지금 대전 국립현충원) 언덕에 장례지냈으며, 부인 한산 이씨도 같은 묘역이다.

공은 성격이 곧고 인자하며 덕을 지켜 온화하고 공손했다.

평생 타인의 과오를 말하지 않았으며, 타인들과 다투지 않았다.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대했으므로 고향인 전라도 금마 30년 생활에 원한을 사지 않았다. 시골의 이웃을 대할 때도 매번 의관을 정제하고 효제충신과 예의엄치를 가지고 대하여 교화가 되었다.

집안에서 자제들을 가르칠 때도 충효와 근검을 계칙하며 집안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말도록 하였다.

관직에 나아가서도 절용과 안민에 힘쓰기에 주력하였으며, 명예를 구하고 공을 바라는 일은 일체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경계하고 격려함에 더욱 삼가 하였다.

지방 목민관(牧民官)으로 출사한지 40년 동안 대구(大邱) 광주(光州) 등 8개 고을의 長을 역임하였지만[歷典八邑]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게 하였다[八邑不損一命].

대구 시장과 광주 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책과 거문고 외에는 짐이 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순창과 능주 목사 그리고 광주(광주시장)에서는 비석을 세워 그의 공을 기렸다.

수령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거문고와 책들만 싣고서 돌아왔을 뿐이다. 순창과 능주 목과 광주 목의 동헌에는 그 곳 백성들이 칭송하는 비석이 세워졌다.²⁰⁾ 이는 지방 수령으로서 행실이 모범이 되고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하지 않은 청백한 행동을 기리기 위함이다. 공은 타인을 대할 때 관대하여 관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시작과 끝이 이와 같았다.

20) 사우당공 회장을 지낸 이종태 회장은 90 노구에 前선우 총무와 동행하여 사우당공의 공적비를 살폈다.

사우당(이시담, 1584~1665)공의 재산은 양가 어머니 贈 貞夫人 해주오씨의 친정이 금마(익산)이므로 그 재산을 물려받았다. 양 아버지 贈 호조판서(이자, 1553~1625)공은 일찍이 妻家에 자녀가 없으므로 처가살이[贅居]로 들어갔다.

을해년(1635) 충정공(생부 연평부원군 李貴, 1557~1633) 3년 상이 다하자, 해주오씨 양어머니 상을 연거푸 당하니, 사우당 공은 喪主로서 묘소를 지키고, 물려받은 농토를 지키며, 재산을 늘리려고 힘쓰지 않았으며 자식들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힘써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남기는 계책을 세우나 이는 그른 것이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모두 정해진 바가 있다. 참으로 각자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할 것이요, 참으로 지킬 능력이 없다면, 비록 선조가 물려주는 재산이 있다 하여도 보존하여 지킬 수가 있겠는가?[雖有先業其能保乎] 다만 절약하고 근면 검소하며 힘쓸 뿐이다.”하였다.

공은 태생적으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性不嗜酒], 말년에는 금마 익산 동헌 옆에 초당 하나를 지어놓고 살면서, 샘물인 한천(寒泉) 주위에 매화·대나무·연꽃·국화[梅竹荷菊]를 심어 놓고, 즐기며 오직 시와 음악을 좋아하였다. 그 초당의 편액을 사우당[扁曰 四友堂]이라 이름, 친구들과 손님²¹⁾을 맞이하는 곳으로 삼아 휴식을 취하고 기거하며 담소를 하였다.

21) 인조 임금이 1637년 병자호란 시 1월30일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나라 황제 태종 홍타이지에 항복 후 도승지(비서실장)로 삼전도비의 비문을 쓴 당시 최고의 문장가 백헌 이경석[전주이씨 덕천군 자손 1595~1671 조선 최고의 실증적 역사서 『연려실기술』을 쓴 이공익의 5대조 호조판서 이경직(『지봉유설』을 쓴 이수광의 손자)의 아우] 공이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 친구 사우당 이시담의 익산군 금마 집을 방문 시(詩)를 지어 친구 초당(草堂)인 사우당의 벽상(壁上)에 다음과 같이 붙였다.

깨끗한 호남 땅에 / 淸絶湖南地
 새로 사우당을 짓고 / 新開四友堂
 푸른 대와 붉은 연꽃을 심어 정결하고 / 靑紅荷竹淨
 황국과 하얀 매화 향기 그윽하고 / 黃白菊梅香
 시원한 기운 환히 밝으니 시흥이 나고 / 爽氣宜風月
 고상한 자태 눈과 서리 같구나 / 寒姿帶雪霜
 내가(영의정 이경석) 술을 갖고 왔으니 / 如邀我携酒
 나와 술과 사우를 합하여 육우당이라 당 호를 불러도 무방하겠네. / 號六亦無妨

명절을 맞아 혹 친한 손님을 맞으면, 집에 있는 아이에게 명하여 거문고를 뜯고 피리를 불며 시를 주고받아 늦도록 즐겼으며 항상 단정히 앉아서 편안하고 즐겁게 유유자적하시고 미간을 찌푸리는 근심이 없으셨다.

80이 넘으셔셔도[年逾八袞] 항상 자신을 챙겨 매일 아침 반드시 손을 씻어 머리를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함이 젊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름이 없으셨고[無異少時至於屬纊之日], 언어나 정신 또한 평상시와 다름없으셨다.

사우당(대전 국립현충원 賜牌地 묘역 贈 병조판서 이시담 1584~1665) 공은 貞夫人 한산이씨를 배필로 취하셨으니, 한안군[휘 : 이오(李澳) 증 영의정, 막내아들 德洞이 1품벼슬]의 아들인 청풍군수 이덕순의 따님으로 목은 이색(李穡, 1328~1396 :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의 스승)의 후손이다.

나(익산 왕궁 묘역 해주목사 이징 公)의 어머니 한산이씨(청풍군수 이덕순²²⁾의

22) 《동명집》 제16권 : 청풍 군수 이공의 묘갈(淸風郡守李公墓碣)

공의 휘는 덕순(德淳)이고, 자는 희백(熙伯)이다. 34세에 임진왜란을 만나 호서로 피난하였는데, 그곳으로 피난 와 있던 사자(士子)들에게 말하기를 “왜적의 형세가 이와 같이 치성하니 살고 죽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 남아가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된다. 만약 창의(倡義)하여 의병을 끌어모으면 적의 큰 진영을 깨뜨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은 숫자의 왜적은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불행히 죽는다고 하더라도 목숨 바칠 곳을 얻어 제대로 죽을 수 있을 것이니, 한스러움은 없을 것이다.” 하자, 모두가 그렇다고 하였다.

그 소문을 듣고서 모여든 사람이 80여 명이나 되었다. 서로 입술에 피를 칠하여 함께 맹서하고는 공을 추대하장수로 삼으니, 공이 말하기를 “공들이 이미 나를 장수로 삼았으니, 나의 명령을 따르면 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군율(軍律)을 쓸 것이다.” 하니, 모두 그러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아주 약하여 형세상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다. 용인(龍仁)과 죽산(竹山) 사이는 길이 대부분 험하고 좁으며, 게다가 왜적의 기병들이 왕래한다고 한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 망을 보고 있다가 깃발로 서로 호응하여 한꺼번에 활을 쏘아 대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 만약 형세가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로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분부를 내려 요해처(要害處)에 숨어서 적을 노리게 하였다. 다음 날 적병 수십 명이 말에 재화(財貨)를 싣고 지나가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쏘아 12급을 참하고 재물을 다 빼앗아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소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이니, 사기가 자못 진작되었다.

따님)는 만력(명나라 황제 만력제) 임오년(1582) 2월 28일 생하시어 승정 기묘(1639)년 2월 24일卒하였다. 나의 아버지(先公 : 사우당)께서는 모친보다 26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 어머니께서는 향년 58세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적병 100여 명이 짐을 실은 채 길을 가득히 메우고 지나갔는데, 앞서 재화를 얻은 것을 이롭게 여기고 또 적병들을 가벼이 보아 다시금 일제히 화살을 쏘았다. 그러자 왜적들이 놀라 무너졌으므로 반도 넘게 사살하였다. 그런데 재물을 얻고자 하다가 얻지 못하게 되자 뒤쫓아 가서 활을 쏘아 소와 말 수십 필을 얻었으며, 화물(貨物)은 무수히 많았다. 공이 말하기를 “내일 왜적들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그들이 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호서로 가서 정세를 관망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은 모두 장사꾼들이어서 노획한 것을 멀리 운반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으므로 관규산(冠規山)에 숨어 있기를 청하였다. 공이 굳이 그러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 며칠 뒤에 왜적들이 과연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였다. 죽음을 면한 자 두 사람이 공의 지략에 크게 감복하여서는 공을 찾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을 사과하였다. 그 뒤에 삼남 지방의 곳곳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였는데, 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은 참수한 왜적의 수급을 가지고 두세 명의 군사와 함께 셋길을 통해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갔다. 당시에 왜적들이 팻 차 있어 길이 끊어졌다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강 이남과 소식을 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불러 보고는 옷과 술을 하사하였다. 장례원 사평(掌隷院司平)에 제수되었다가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로 옮겨졌다. 그 뒤에 양지(陽智)·안음(安陰)·용궁(龍宮)·지평(砥平)의 현감을 역임하였으며, 치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청풍 군수(淸風郡守)에 발탁되었다. 순찰사가 표창하라고 아뢰에 따라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내직으로 들어와 위장(衛將)이 되었다. 병인년(1626, 인조4) 10월에 졸하였는데, 나이가 68세였다. 고양(高陽)의 궐산(蔚山)에 장사 지냈다. 공은 한산인(韓山人)으로,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9세손이다. 고조 유청(惟淸)은 좌의정이었다. 증조 언식(彦湜)은 익위(翼衛)였다. 할아버지 방(滂)은 현감이었다. 아버지 오(澳)는 호군(護軍)이었는데, 막내아들 찬성(贊成) 덕형(德炯)의 관작으로 인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부사(府使) 민원종(閔元宗)의 딸이다. 공은 도사(都事) 김도(金燾)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홍원(弘源)은 현감이고, 차남은 복원(復源)이며, 장녀는 진무 공신(振武功臣) 순양군(順陽君) 안몽윤(安夢尹)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군수 이시담(李時聃)에게 시집갔다. 내외의 손자와 손녀는 20여 명이다. 공은 비록 크게 드러나지는 못하였지만, 나라를 위한 충성과 군사를 쓰는 지혜는 드러났다. 명은 다음과 같다.

고양 땅의 궐산이란 그 산자락은 / 蔚山之麓 바로 공의 선영들이 있는 곳이네 / 是公先塋
공도 또한 그곳에서 잠들었거니 / 公亦宅于此 어찌 길이 평안하지 아니하겠나 / 曷不永寧

정부인 한산이씨께서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섬기셨고, 자녀교육에 힘쓰셨으며, 형제간에도 우애가 돈독하셨으며, 일가 간에도 두터운 정을 가지셨고, 집에서 부리는 비복들에게도 따듯이 대하셨다.

1639년 공주 갑촌(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옛 이름)에 묘소를 썼었으나, 사우당공께서 1665년 돌아가셨을 때 옆으로 옮기셨다.

[공주 갑촌의 땅은 조선조정으로부터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 기여한 공으로 받은 사패지(賜牌地)였으나, 행정 구역이 대전시로 변하고, 묘역이 정부의 방침에 의거 1970년대 중반 국립현충원부지로 유상수용(有償收用) 됨으로 인하여 사우당 공 부부의 묘역과 연안이씨 시조(李茂 공) 묘역만 존치하고, 이외의 자손들 묘소는 익산과 논산으로 천장 되었다].

사우당 이시담 공은 1623년 인조반정 원종 1등공신(功臣)이다. 초취인 정부인(貞夫人) 한산이씨에서 4남(징·형·오·필)1녀를 낳으셨다. 또 측실에서 3남(성·회·정)을 낳았으니, 공의 자녀는 7남 1녀 8남매이다.

사우당공의 장남 해주목사 이징(愷)公은 대사성 신민일의 따님 숙부인(淑夫人) 평산 ²³⁾申씨 사이에서 3남(명저·공저·경저) ²⁴⁾2녀를 낳았고, 함경도(北兵使) 사령관 양준민의 따님 숙부인(淑夫人) 남원양씨에서 양저[無後]·운저(耘著) ²⁵⁾공을 낳고 1녀를 낳아 8남매이다.

큰아들 명저 공은 進士에 급제, 祖父 사우당공으로부터 논과 종(노비)을 증여 ²⁶⁾

23) 대사성 신민일의 따님이시고, 외조부가 창녕성씨 우계 성혼 선생의 아들인 성문준(충정공 이귀의 막역한 친구)이다.

24) 해주공의 3남 경저 공의 外孫女가 좌의정을 지내고 대제학을 역임한 이복원을 낳고, 領議政 이시수와 大提學 이만수의 할며니가 되었다.(사우당공과 정축보 발취)

25) 익산 해주공 묘역 신도비문에 의거함. 남원 양씨 소생으로 북명사(함경도 사령관) 양준민 공의 외손자이다. 익산 비문에 의함.

26) 국세청이 전시한 350년 전의 연평부원군 이귀의 차남 충주목사 (사우당) 이시담이 과거시험인 진사시[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두 손자(해주 목사 이징의 아들)에게 주는 익산의 토지와 종[奴]을 증여(贈與)하는 별급문기[別給文記]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받았으며, 헌감이 되어 향년 68세에卒했다.

둘째 공저공도 進士에 급제 했으나 일찍 卒하였다(영의정 홍명하가 장인이다).
해주공의 셋째 경저 공은 딸만 둘 있고 아들이 없다.²⁷⁾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 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분재(分財)·재산 상속 때에 작성되는 것급문기 [給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 등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서기 1663년(현종4년) 할아버지(당시 80세) 가선대부 이시담(李時聃, 사우당1584~1665 향년82)이(해주 목사 이징의 아들들) 장손 이명저(1631生)가 진사시험[司馬試]에 합격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종(奴, servant) 1명과 논[畓] 39부(負) 2속(束) 즉 벼 392단 소출되는 면적을 증여한 문서. 이 문서는 손자 이명저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재산을 특별히 증여한 것이다. 보통 문과 및 사마시(진사: 생원시)에 합격하면 유가(遊街)와 연회 등 축하 행사와 더불어, 가문에서는 고관대작을 증인으로 모셔와 이러한 재산을 증여하는 게 하나의 관례였다.

이와 같이 과거 합격에 대한 특별한 재산 상속을 ‘등과별급(登科別給)’이라 하였다. 본 문서 처럼 서울에 살던 연안(延安) 이 씨는 합격자의 조부가 필집(筆執: 증여문서 집필자)이 되고, 대소 관원들이 증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문 가운데 붓으로 ‘ㄱ’모양의 표시는 일종의 교정 부호인데,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속된 재산 가운데 훗날 그 소유권에 변동사항이 생김에 따라 그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강희 50년(1711년) 별급된 논을 타인에게 팔았기에, 그 사실을 문서의 뒷면에 부기하였다. 재주(재산의 주인) 이시담(1584~1665)은 본관은 연안이며 자는 현충 또는 자현, 호는 사우당(四友堂·매·연·국·죽)이다. 1613년(광해군 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 유생(儒生)으로 있으면서 1623년의(부친 연평부원군을 따라) 인조반정에 공을 세우고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훈 되었고 삼형제가 아버지를 따라 정사(인조반정)에 참여하였다. 이명저(李明著, 12631년生)는 이시담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임천 군수를 지낸 이징(李澄 훗날 해주 목사)이다.

현종 4년(1663) 진사시(司馬試: 3년마다 100명씩 선발)에 합격하였고 합격 당시 서울에 거주하였다. 1657년(효종) 조부 이시담(1584~1665)이 둘째 손자 이공저(1634년 생)가 진사시험에 합격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여자 종 1명과 논 43부3속 즉 벼 433단이 소출되는 면적을 증여하는 문서. 이러한 과거합격 분재(分財)에는 부형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령도 참여하여 분재기에 증인 또는 집필자가 되었다. 본 문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의 주인 전 충주목사 이시담(사우당)의 형이자 영의정을 역임한 이시백(李時白, 1581~1660)도 직접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공저(李公)는 1657년(효종8) 정기시험인 식년시에서 진사(進士) 100명 가운데 4등의 석차로 합격하였다. 자(字)는 정희(正晦)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아버지는 이징(임천군수-해주목사) 군수를 지냈다. 형은 이명저, 아우는 이경저, 이운저(李耘著)이다.

27) 큰사위 박필순은 반남 박씨로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문효공 박태상(1636~1696)이다. 그는 서계 박세당의 조카이다.

해주공의 장녀는 현감 남양 홍수관에 출가했고, 차녀는 도사 죽산 안상만에 출가했다. 막내딸은 안달(족보에는 안전)에 출가했다.

사우당공의 차남 이형(惇)공은 2남 후저와 세저를 낳았고,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유학 이지일에 출가, 차녀는 유학 김호에 출가 했다.

사우당공의 3남인 이오(悟)공은 3남을 낳았는데 목사 만저와 민저, 하저이다.

이오의 장녀는 참봉 신차적에 출가, 차녀는 판관 정두상에 출가, 3녀는 한배하에 출가했다.

사우당공의 4남인 개령현감 이필(泌)공은 휘저를 낳고, 장녀는 유학 곽시징에 출가. 차녀는 유학 송승여에 출가 3녀는 유학 이문소에 출가, 4녀는 유학 윤명교에 출가했다.

사우당 공의 외동딸은 윤유익(尹惟益) 공과의 사이에서 4남2녀를 낳았다.

장남 윤선경과 차남 윤임경은 早死하였고, 3남 윤헌경은 현감이었고, 4남 윤정경은 도사를 지냈다.

장녀는 생원 어진석에 출가, 차녀는 유학 박세영에 출가했으나 早死함.

사우당공의 서손은 庶子 이성 공이 1남3녀를 낳고, 이회공이 1녀를 낳았다.

사우당공의 차남 이형 공은 서자(庶子) 종저를 낳고 서녀 4인을 낳았다. 그 첫째는 유신에 출가, 2녀는 정이번에 출가, 3녀는 노도형에 출가, 4녀는 사인 이경에 출가 했다. 이렇게 사우당(李時聃, 1584~1665)공의 내외손자가 80여명이다

서리가 이미 내렸으니 묘소의 풀도 이미 묶어 사모하는 마음 더욱 슬프나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픔의 경황이 없는 차에 부친의 행장을 쓰면서, 만 가지가 빠지고 한 가지만 찾아서 위와 같이 못난 큰아들 징(해주목사 : 익산 묘소)이 피 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한다.

조선후기의 대표적 화가 이인문 李寅文

◆대중회 사무총장
대장군공파 31세손 이인배 (李仁培)



이인문은 대장군공파 23세손이며, 자는 문욱(文郁), 호는 고송류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 유춘(有春), 자연옹(紫煙翁)이다. 도화서의 화원으로 김홍도와 같은 나이였으며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지내셨다.

산수(山水)를 비롯하여 도석인물(道釋人物), 영모(翎毛), 포도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셨고, 화풍은 남종화와 북종화 등 각체의 화법을 혼합한 특유의 화풍을 보여 당대 단원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었다.

종보 제91호에 既 게재한 대표작 강산무진도와 포도도, 설중방우, 단발령망금강도에 이어 이번호에는 다른 작품을 게재해 본다.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하경산수도는 公의 산수화 중 드물게 보는 대담한 대부벽준(大斧壁皴) 법을 구사한 작품으로, 화면을 압도하듯 호탕한 솜씨를 보여 준 남종화법의 가작(佳作)이다.

公은 장수 하였는데 이 작품은 72세 때의 작품이다. 그가 살아온 생애를 대변하듯, 계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곡 사이에 홀로선 노송은 마치 불의와 타협치 않는 기개를 보이며, 우측 높게 솟은 바위는 장엄하여 계속 뻗어 나가는 조선을 염원한 듯하며, 정자에서 평화롭게 담소하는 두 인물의 등장과 한가로이 동자를 앞세워 정자로 찾아드는 노인의 모습 또한 편해보인다. 또한, 계곡 사이의 물은 힘차고 끊임없이 흐르며 표현이 간결하다. 암봉(岩峰) 너머로 먼 산이 담채(淡彩)로 그려졌고 그 앞에 한 그루의 나목(裸木)이 가로막으며 공간의 깊이를 더해 준다.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

다섯 그루의 노송(老松)이 적당한 간격으로 얹혀 배치되었고 그 아래에 평평한 땅 위에는 세 선비가 편한 자세로 한담하고 있다.

그 왼쪽에는 바위에 부딪치며 흘러내리는 폭넓은 냇물이 시원하게 퍼져 나가며 양편 암벽 사이로 탐과 건물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그려져 거리감을 잘 나타낸다. 필치의 대부분이 감각적 갈필(渴筆)로 세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게 솔잎의 배경과 바위 군데군데 투명한 연 푸른색이 더해졌다. 현재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

목양취소(牧羊吹簫)

양을 치면서 단소를 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에 강가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옷통 벗은 한 소년이 큰 바위에 걸터앉아 단소를 불고 있다. 자세히 보면 뒤쪽에 조그마하게 그려진, 소를 데리고 나온 소년의 낚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목양취소 (牧羊吹簫)

진 시대 사람으로 15세 무렵, 집에서 양을 치라고 밖으로 보냈더니 신선이 금화산으로 데리고 가 도를 닦게 하였고 그 뒤로 40년이 지나 그의 형이 금화산에서 아우를 찾으니 동생이 집을 떠났던 15세의 모습 그대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황초평’의 모습이 어릴적 그대로였다는 전설은 동생을 계속 간직하고픈 사람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사람과 물체의 크기가 분명하게 차이나게 그려 원근감이 두드러지는 것은 서양화법의 일부였다고 보여지며 公의 화풍의 특징적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이 소년은 옛 이야기에서 나오는 ‘황초평’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황초평’은

선동전약 (仙童煎藥)

소나무 가지가 드리운 그늘 아래 솟사슴과 나란히 앉은 소년이 약을 달이고 있다. 먹을 장쾌하게 끌어내려 그린 암벽과 그 위를 타고 흐르는 폭포, 푸르름이 떨어지듯 흥건한 먹으로 그린 나뭇가지가 어우러져 여름의 훈풍이 불어오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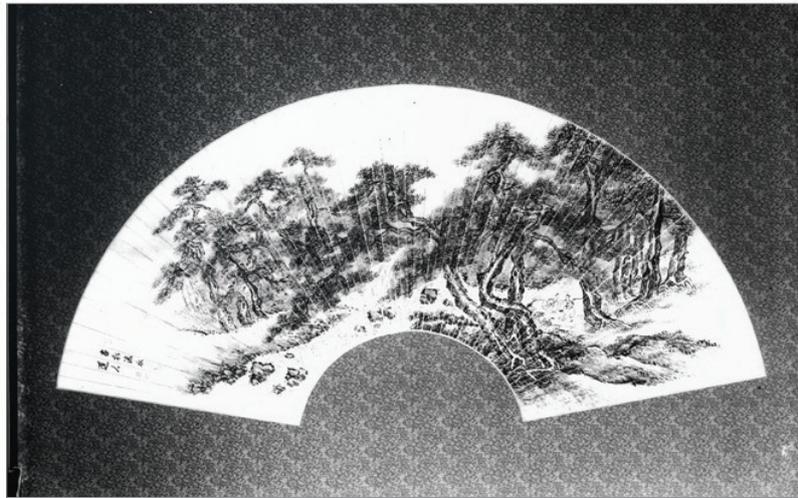
소나무 아래 돌아난 붉은 영지는 이곳이 신선의



선동전약 (仙童煎藥)

세계임을 암시하지만 公은 폭포와 적송 등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산수풍경을 배경으로 풀어냈다. 진경산수와 함께 다양한 화법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화풍을 이룩한 公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편면송하청류도(扁面松下聽流圖)



편면송하청류도(扁面松下聽流圖)

편면(扁面)이란 화첩에 끼워 감상하던 작은 그림이다.

소나무 아래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한쪽에 굽어진 소나무, 그 소나무 아래 앉아있거나 기대어 선 선비, 맑은 계곡물, 단출한 산수 배경, 간결하지만 세련된 필선, 담담한 수묵 위주로 차분하며 여백이 있어 고요하고 깊은 사색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궁중 화가답게 구성은 치밀하지만, 내용은 문인화처럼 정신적 철학적이다. 이상적인 선비의 삶과 마음가짐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의 설날 풍경

세계 여러나라의 설날(신년)풍경은 문화별로 달라 흥미롭다.

한국-설날(구정)

가족이 한복을 입고 세배, 차례, 성묘를 하고 떡국을 먹으며 윷놀이 널뛰기 등 전통 놀이를 한다(흰 떡은 새 출발,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음을 의미한다) 귀성길 대이동 풍경이 있다.



중국-춘절

세계 최대 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빨간색 장식을 하고 폭죽 불꽃놀이를 하며 세배돈을 주고 받는다. 만두(풍요와 부를 상징), 탕위엔(꿀.개가 들어간 찹쌀 경단)을 먹으며 사자춤 공연을 한다.



일본-정월(1월 1일 양력설)

신사나 사원 참배를 하며, 오세치(여러 종류의 재료를 층층이 쌓은 음식), 조니(떡국) 요리를 먹고 연하장을 주고 받는다. 경쾌한 종소리로 한 해를 맞으며, 카도마쓰(대나무, 소나무로 만든 장식), 시메카자리(집 대문에 매다는 금중 장식) 장식을 한다.



베트남-뗏(음력 정월)

집안 곳곳에 노란꽃, 빨간 글씨로 액땀하고 빨간 수박, 족자 등을 걸어 복을 기원한다. 전통 떡인 반쫘(참쌀, 콩, 고기를 넣어 잎으로 싸 찢 네모떡)을 먹으며 조상신을 모신다. 불꽃놀이, 사자춤 등 화려한 거리 축제를 한다.



미국-1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롭(신년 카운트다운, 꽃가루, 폭죽 팡팡)
폭죽을 터트리며 새해 목표를 세우고 샴페인을 터트리며 가벼운 스낵을 먹는다.
LA, 샌프란스코 등에서는 대규모 춘절 퍼레이드가 있다.

프랑스-1월 1일

상젤리제 거리 불꽃놀이, 친구, 가족끼리 치즈 및 샤프퀴트리(소시지 등 수제 가공육), 갈레트 데 루아(아몬드가루를 과자 안에 넣고 구운 요리)를 먹고 샴페인을 마신다.

영국-1월 1일

템즈강의 불꽃쇼, 에든버러 호그마니(헛불 행렬과 불) 축제, 신년 페레이드
로스트 디너(고기로 조리하는 방식), 파이, 퍼지 케이크, 블랙번 빵(과일 건과류가 들어간)을 만들어 먹으며 위스키를 마신다



중동국가

대부분의 중동국가의 새해(이슬람력 음력)는 큰 축제의 날이 아니라 조용한 종교적 기념일이다.

사원을 방문하고 꾸란을 낭독하며 가족과 조용히 지낸다. 그러나 두바이, 도하, 리야드 등의 도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불꽃놀이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한다.

나의 산행기

◆전주화수회 회장
첨사공파 29대손 이용문

나는 전주시청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하고 명예퇴직한 후 건강과 여유시간은 유효하게 보내기 위해, 내 평생 산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팔도 산악회에 가입을 한 후 열심히 등산을 다녔다.

그 간 등반한 횟수는 약1,000여 회가 되는 것 같은데 헤아릴 수가 없다.

역시 기억에 남는 등반은 백두산과 한라산 등반이었다고 본다. 자작나무 우거진 산속 숙소에서 1박을 하고, 바로 백두산 장백폭포에 달려가, 폭포에 발을 담근 후 SUV차량으로 이동후 40m를 잠깐 걸어 올라가니, 사진에서만 봐왔던 백두산





천지가 눈앞에 갑자기 펼쳐지지 않았는가. 그 때의 격한 감격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역시 우리 민족의 영산임에 틀림이 없다.

한라산은 2021년 1월 눈축제 산행때 등반 했었는데 눈이 1m이상 쌓여 성판악에서 부터 길이 없어져, 길을 만들어 가며 올라갔는데 얼마를 갔을까 통제소에서 “위험하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하산하십시오” 하는데 난감하였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까워 주최측과 협의를 하여 전문안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4명 셀과의 도움으로 안내밧줄을 잡고 백록담 정상까지 정복하고 무사히 하산한 기억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만해도 젊은 패기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였으나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다. 후에 알게된 일이지만, 내가 등반한 얼마 후 관음사 코스에서 하산하다가 사고가 나 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자연에 순응하며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현재도 전주고 졸업생 7명이 매주 전주시 근교에 있는 모악산, 행치봉, 건지산, 황방산 등을 등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후부터 여태까지 등산을 계속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걸을 수 있을 때 까지 등산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내 경험으로 보아, 등산은 매우 좋은 유산소 운동이오니 종원님들께도 적극 권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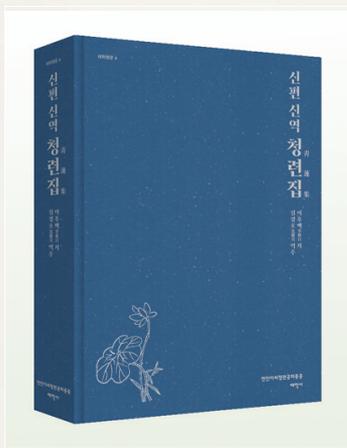
청련집 출판기념 강연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선생
신편신역 '청련집' 출판기념 강연회 개최

◆ 연안이씨 청련공파종중 회장
부사공파 20세 이철진(李哲鎭)



조선 청백리 이후백 글·생애 담은 ‘신편신역 청련집’ 출간



부사공파(副使公派)의 지파(支派)인 청련공파종중(靑蓮公派宗中)은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홀)에서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1520~1578) 선생의 문집 ‘청련집(靑蓮集)’을 정리·번역한 책 『신편신역(新編新譯) 청련집(靑蓮集)』 출판기념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금번 『신편신역 청련집』 출판은 2019년 청련공파종중에서 발주한 청련공(靑蓮公)의 학문과 관료정신에 관한 연구용역 및 2022년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

회 개최를 계기로 구체화되었는데, 당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에 참여하셨던 우리나라 한문학의 대가이신 심경호 교수께서 청련집 번역본의 정본(定本)을 만들 것을 제언한 것을 계기로 청련공파종중에서 심교수께 청련집 번역본에 대한 정본화 작업을 의뢰하여 중중의 철진(哲鎭) 회장을 비롯한 중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한문학 전문 출판사인 태학사의 편집·교정 작업을 거쳐 현실화되었다.

이날 강연회는 오전 10시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청련공파종중 철진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철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신편신역 청련집』의 저자 청련공은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李白)을 좋아하신 조부께서 ‘뒤에 태어난 이백’이란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게 8세 때부터 탑송(塔松), 소상팔경가(瀟湘八景歌) 등 당시풍(唐詩風)의 시는 물론이고 다른 양식의 시까지 100여 수의 시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산문에도 능하시어 24년간 관직생활을 하시면서 호당(湖堂)에 선발되시고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시면서 당대의 중요한 국왕의 교서, 조정의 공문, 변문의 외교문서를 제출하셨는데, 종계변무정사(宗系辨誣正使)로 명나라 조정에 가서서 조선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太祖)의 가계에 대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



정케 하신 공적으로 사후 광국공신(光國功臣)에 등록되시고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에 봉해지셨으며,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이라는 제목을 정하셨고, 그 서문(序文)에서 우리나라 성리학(性理學)의 연원(淵源)과 체계를 확립하셨으며, 왕명에 따라 을사사화(乙巳土禍)로 공신호(功臣號)를 받은 사람의 공신호를 삭탈해야 함을 반포하는 글인 을사삭훈반교문(乙巳削勳頒教文)을 지으셔서 경국문장(傾國文章)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함경도 관찰사로서 함경도의 문교(文教)와 민생(民生)을 안정시키고 당시 무관이던 이순신(李舜臣)의 공직관에도 영향을 끼치셨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 때는 이미 천거대상에 있던 친척이라도 인사청탁을 하자 만약 구하는 자만이 자리를 얻는다면 공도(公道)가 아니라고 하면서 물리치시는 등 이조(吏曹), 형조(刑曹) 및 호조(戶曹)의 각 판서(判書)를 두루 거치시면서, 율곡 이이가 평한 것처럼, 관직에 계실 때는 그 직분을 다하셨고 몸가짐이 깨끗하여 벼슬이 육경의 지위에 이르렀으나 살림이 가난하기가 유생과 같은 등 강직한 청백리(清白吏)의 전형(典型)을 보여주셔서, 사후에 청백리(清白吏)에 녹선(錄選) 되셨다고 언급한 후, 『신편신역 청련집』은 옛 문집의 번역을 넘어서 500년을 이어온 청련공의 고결한 정신을 현대의 언어로 복원하고 공의 삶과 사상을 후대에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의 결실임을 밝히며 『신편신역 청련집』이 오늘날 후손들은 물론 모든 지식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사표가 되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학문의 중요성과 청렴의 가치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전국대중회 혁명 회장은 축사에서, 청련공은 조선의 학문적·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고 청직(淸直)을 실천하신 경세가(經世家)로서 함경도 관찰사 재임 때는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위민선정(爲民善政)을 베푸시어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으셨고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계실 때는 친한

죽인의 부탁도 물리치시고 청백리(清白吏)로 선정되신 분으로 율곡 이이(栗谷 李珣)도 공을 존경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청련집은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이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자손만대까지 누릴 음덕이므로 청련공



재해석되어 출간된 『신편신역 청련집』

의 고귀한 정신이 청련집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 오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일 진눈깨비가 내리는 제법 추운 날씨였음에도 전국대중회 혁범 회장님을 비롯하여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님, 광산김씨대중회부회장겸 광산김씨문경공종중의 도유사이신 김용길 한국산업법제 연구원장님, 광산김씨이시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에스앤파트너스 입법지원 센터 김용섭 센터장님, 전국대중회수석부회장겸 판사공과대중회회장이신 윤희 회장님, 부사공과대중회 원규 회장님, 대장군공과대중회 남진 회장님, 수도권종친회 종대 회장님, 연성회 성우 회장님, 첨사공과 숙부인과 용준 전 회장님, 부사공과대중회 은화 고문님과 경영 고문님 등을 비롯하여 청련공과 등 연안이씨 종원, 기타 계보학회, 역사학계, 유학계, 출판계 등에서 총 105분이 참석하셔서 『신편신역 청련집』 출판 기념 강연회의 자리를 빛내주셨다.

**조선 중기 문신 이후백의 시문·산문 현대어 완역, 학계와 문중 공동 성과
고려대 심경호 교수 등 한국학 전문가들 문헌 정본화 작업 의의 발표**

이날 본 프로그램인 강연에서는, 먼저 한문학의 대가로서 본 『신편신역 청련집』의 역자이신 심경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청련공은 당시풍(唐詩風) 뿐 아니라 모든 시 양식에 능하셨고, 호당(湖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지제교(知製敎)를 겸할 정도로 문장에 뛰어나 당대의 중요한 왕의 교서, 조정의 공문, 변문의 외교문서 등을 제술하신 명문장가임을 설명하시면서, 선조의 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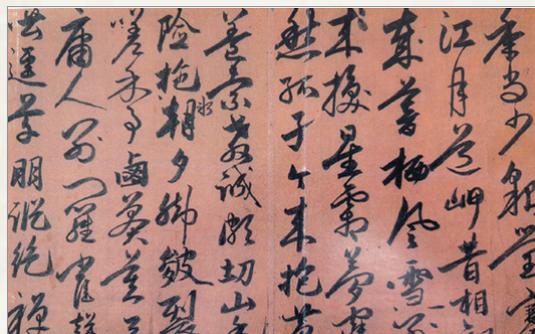


청련 이후백 선생 영정

량도 뛰어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조선의 숙원사업이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해결한 공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 성리학의 정통을 세우는 글을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하시면서 당초 동방유선록이라 되어 있던 것을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으로 수정하시고 그 서문(序文)에서 조선의 도학(道學) 전통의 체계를 확립하신 것과 을사삭훈반교문(乙巳削勳頒教文)을 지으신 것은 명문장가임과 동시에 지기(志氣)를 가진 강직한 관료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높게 평가하셨고,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아의 재정보다는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우선시하는 등 참된 목민관(牧民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셨고, 청련공은 외교역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 교수는, 연안이씨 청련가(靑蓮家)가 충(忠)과 효(孝), 그리고 학문(學問)을 다 갖춘 명문가라고 설명하시면서, 청련공의 둘째 손자 유길(有吉)은 부친(청련공의 子)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손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순신의 수군에 들어가 명량해전에서 공을 세워 9품직 제수와 함께 충효(忠孝) 두 글자를 하사 받았는데, 나중에 명나라에서 후금(後金) 침입으로 원병을 청했을 때 자원하여 영유현령(永柔縣令)을 제수 받고 출군하여 전사하신 후,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으로 증직(贈職)되고, 충의(忠毅)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신 후, 이후백의 청련가는 퇴계학, 남명학, 기호학과의 영향을 두루 받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적 균형감을 유지했고 화합과 균형의 가치를 내면화했다고 설명하면서, 『신편신역 청련집』의 출판



청련 이후백 선생 유묵



청련 이후백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청련사(靑蓮祠) 전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은 조선 후기 지식인을 연구한,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내빈으로 참석하신 광산김씨 가문의 김용섭 명예교수님께서 즉석에서, 광산김가에서 두 분의 문묘배향(文廟配享)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 분의 왕후 배출로 인하여 양반가문의 순서에서는 연안이씨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한다고 하시면서 청련공이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계실 때 사후 문묘에 배향된 광산김씨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9품직인 창릉참봉(昌陵參奉)으로 추천하시면서 추천회의까지 하신 일화를 언급하시면서 9품직 추천에도 직분에 충실하려고 하신 청련공의 공직관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신편신역 청련집』의 출판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신편신역 청련집』 출판 강연회는 청련공과 철진 회장의 폐회사로 공식적으로 폐회하고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오찬이 제공되어, 내빈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시거나 담소를 나누신 후 오후 2시 쯤 대부분 식사를 마치고 『신편신역 청련집』과 기념품을 수령하신 후 귀가하심으로써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

參軍公派참군공파 來歷내력

◆小府監判事公派 28世
이종원 (李鍾洵)



延安李氏 小府監判事公派 支派는 벼슬한 분이 많은 14世를 중심으로 나뉜다.
(이하 존칭은 모두 생략)

參軍公派도 14世 賚(퇴)가 漢城府의 參軍(정7품)을 지낸 데에서 비롯된다. 먼저 參軍公派의 世系를 9世부터 16世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世 石亨, 10世 渾, 浩
11世 壽長, 命長, 福長, 孝長, 順長, 敬長
12世 嶮, 崐, 嶷, 嶷
13世 廷虎, 14世 賚(參軍公), 15世 時亮
16世 惇

賚의 5代祖는 9世 樛軒 石亨이다. 三壯元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集賢殿 學士, 全羅 黃海 京畿 觀察使, 漢城判尹, 成均館 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4代祖는 10世 渾으로 司馬와 文科와 급제하였으며, 兵曹 正郎, 司憲府 掌令, 成均館 司藝 등을 역임하였다.

3代祖, 11世 壽長은 소위 6長의 첫째로 大護軍(중3품)을 지냈다.

12世 嶮은 壽長의 셋째 아들로 忠義衛 副司果(중5품)를 지냈다.

賚의 아버지 13世 廷虎는 司馬와 文科에 及第하여 掌隸院의 判決事(정3품)를 역임하였다.

15世 時亮은 賚의 외아들이다. 廷虎, 賚, 時亮은 3代가 獨子다.

16世 惇은 四友堂 時聃의 둘째 아들인데 三從叔父인 時亮에게 養子로 갔다.

參軍公派가 時祭를 모시는 맨 위 조상은 16世 惇이다.

惇은 薦擧로 중6품직인 察訪을 시작으로 禮賓寺 別提와 橫城, 通津, 淸安 縣監을 역임하였지만 과거와 벼슬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隱逸한 삶을 살았다. 尤庵 宋 時烈은 墓表文에서 어른의 淸淑한 道를 찬양하였다.

惇은 형제들이 주로 거주하던 익산, 공주에서 먼 洪州(현재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 터전을 잡았다. 큰 대궐을 짓고 살았는데,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자연을 가꾸며 號를 秋聲堂이라 하였다. 아마 당시 부자였던 친아버지 時聃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품격이 대단했던 그 대궐집은 安東金氏 네로 넘어갔다. 1980년대에 헐려 없어졌지만 어른이 심고 키운 것으로 보이는 집터 주변의 고목들은 지금도 여전하다.

惇의 墓所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先塋에 있다. 2009년 移葬 전에는 경기도 고양 원당 先山의 議政公(친증조부)의 묘소 바로 아래 우측산 입구에 있었다.

16世 惇은 15世 時聃의 둘째 아들이다.

16世 惇을 중심으로 親子 관계를 요약하면 壽長 - 巖 - 廷華 - 貴 - 時聃 - 惇으로 이어진다.

- 11世 壽長
- 12世 巖, 岾, 岾, 岾
- 13世 廷秀, 廷華, 廷顯
- 14世 寶, 賡, 資, 貴
- 15世 時白, 時聃, 時昉, 時膺, 時衡
- 16世 愷, 惇, 悟, 恂, 愷, 懷, 情

16世 惇의 親4代祖 12世 巖는 壽長의 첫째 아들로 文科에 及第하여 玉堂, 南床, 司憲府 掌令 등 요직을 거쳤으나 趙光祖의 門人으로 己卯史禍 때 楊州牧使로 좌천되었다.

惇의 親曾祖父 13世 廷華(贈 領議政)는 巖의 둘째 아들로 부인 安東權氏와의 슬하에 7남매를 두었으나 38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 큰아들 寶(贈 司憲府 持平)는 임진왜란 때 義兵將으로 梨峙 전투에서 殉節하고, 둘째 賡은 31세로 일찍 죽었다. 셋째 資에게 자식이 없자 넷째 貴가 둘째 아들인 時聃을 後嗣로 보냈다.

時聃의 族父인 14世 資(贈 戶曹判書)는 익산 지역의 부호인 海州吳氏와 결혼하여 처가의 도움으로 익산 東軒 근처에 99칸짜리 대저택을 짓고 隱逸君子로 살았다.

惇의 親祖父 14世 貴는 廷華의 넷째 아들이다. 李珥와 成渾의 門人이며, 司馬와 文科에 及第하였다. 康陵 參奉을 시작으로 壬辰倭亂 때 三道召募官, 長城 縣監, 金堤 郡守 등을, 47세 때 늦게 文科에 及第한 후 刑曹 佐郎, 良才 察訪, 安山 百川 郡守, 咸興 判官, 肅川 平山 府使를 지냈다. 仁祖反正 後에는 大司憲, 左贊成, 兵曹判書, 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仁祖反正을 主導하고 成功시킨 仁祖反正 靖社 功臣이다. 壬辰倭亂, 丁酉再亂, 丁卯胡亂의 외세침략의 國家危機 時代를 살면서 몸소 愛國愛民을 실천하였고 많은 上疏로 國家改革과 청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惇의 親父 15世 時聃은 貴의 둘째 아들로 셋째 아버지인 資에게 양자로 갔다. 兄은 時白(領議政)이고, 同生은 時昉(戶曹判書)이다.

時聃은 司馬에 入格하였고 또 仁祖反正의 原從功臣으로 主簿, 監察, 縣監을 거쳐 光州, 충주의 牧使까지 지냈다.

아버지(資)의 재산을 물려받아 익산 금마에서 부자로 살았다. 만년에는 寒泉 우물가에 초당인 四友堂(梅, 竹, 蓮, 菊을 상징)을 짓고 자신의 號로 삼았으며, 서예, 그림, 시를 즐기며 살았다.

時聃의 큰 아들(惇의 兄)은 愷(牧使)이고 셋째와 넷째 아들(惇의 同生)은 悟(司馬, 參奉)와 悒(縣監)이다.

14世 資의 자손, 즉 15世 時聃의 자손은 모두 四友堂公派이다.

14世 資의 자손인 參軍公派는 모두 16世 惇의 자손이다. 惇은 四友堂 時聃의 둘째 아들로, 親子 관계로 보면 參軍公派도 모두 四友堂公派라 할 수 있다. 또 친할아버지인 貴의 자손이라는 점에서는 忠定公派이기도 하다. 親子 관계로 보면, 四友堂公派나 忠定公派, 參軍公派는 모두 忠定公 貴 어른의 자손이다.

參軍公派(16世 惇의 자손)로 科擧에 入格 及第하거나 벼슬을 한 조상은 17世 後著(通德郎), 世著(尙瑞院 副直長), 18世 思弘(宣教郎), 思一(掌隸院 判決事), 思萬(府使), 19世 命裕(司馬), 命坤(文科 壯元, 大司憲), 20世 棟(司馬, 縣令), 球(司馬, 郡守), 疎(司馬, 縣令), 峻膺(縣監), 社膺(僉中樞), 21世 度謙(司馬, 文科, 南床 銓郎, 弘文館 敎理), 度儉(司馬), 22世 採(司馬), 26世 景熙(警察署長), 27世 昌培(영문학자, 동국대 學長, 大學院長), 寬培(初等學校長), 昌培(忠南道議員), 商培(獎學官), 28世 鍾紀(面長), 鍾瑞(성균관대 의대 교수, 삼성병원 과장), 鍾益(面長) 등이며, 현재도 鍾洹(行政高等考試, 教育部 局長, 忠南 仁川 副敎育監, 敎員所請審査委員會 委員長(1급), 大學 總長), 鍾銑(行政高等考試, 公正去來委員會), 29世 時雨(行政高等考試, 教育部) 등이 활동 중이다.

가족 약력

◆ 필자 李鍾洵

- 1956. 3.29 生, 參軍公派 28世. 한양대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 박사
- 1979. 12 行政高等考試 (제23회)
- 1980. 5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법무관실, 양성과, 감사관실, 교원정책과, 총무과 인사계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정책총괄과장(사무관, 서기관)
- 2002. 2 교육부 총무과장, 서울교육청 기획관리실장(부이사관)
- 2005. 3 충남 인천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 부산대 사무국장(이사관)
- 20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1급)
- 2013. 12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 동원대 총장(2022.5~현재), 신암학원 이사장(2024.7~현재)

◆ 처 李鎔仁

- 1958.10.13 生, 全州李氏. 성신여대 학사. 소설가
- 2009 현대문학 장편소설 당선(나의 아름다운 마라톤), 2011 한우리 문학상(대상). 우리는 공부하는 가족입니다, 사라사 양장점, 낭독의 정원, 달려라 벽화 등 발표

◆ 딸 李彩雨

- 1985.5.28 生. 서울대학교·대학원(산업공학과 수석 졸업)
- 미국 MIT대 박사(삼성장학생), 현재 MIT Age Lab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 사위 李斗鏞

- 1986.2.26 生, 德水李氏. 서울대 학사, 보스턴대학교 석사
- 현재 미국 하버드대 매니지먼트컴퍼니 디렉터

◆ 아들 李時雨

- 1987.9.12 生. 연세대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2009 行政高等考試(제53회). 현재 교육부

◆ 며느리 姜智媛

- 1987.4.14 生, 旆州姜氏. 한국교원대학교 학사, 서울대 석사·박사
- 현재 경기도 공립고교 교사

◆ 외손 李昕湖(2018.2.20 生), 李洗湖(2024.2.17 生)

◆ 친손 李逸羅(2023.6.16 生)

연천 송의전崇義殿 추계秋季 대제大祭 봉행

◆ 관사공과 27세
이명배(李明培)



2025년 10월 5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소재 국가사적 제223호인 송의전(崇義殿)에서 봉행되었다.

천년의 역사중 475년간을 지속한 고려(서기 918~1392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고려시대의 왕과 공신, 충신을 기억하며 통일을 염원하고 조상님들의 절의 정신을 기리고, 고려 건국 1108년의 역사를 이어온 송의전 추계대제를 개성왕씨종친회의 송의전 보존회 주관으로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송의전 정전(正殿)에서 고려태조 왕건(王建, 877~943), 대량원군 현종(顯宗, 992~1031), 고려 최전성기

주1) 고려(高麗)는 서기 918년 태조 왕건이 건국하여, 936년에는 후삼국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1392년 공양왕 까지 약 475년간 한반도에 존립한 국가이다.

고려 통일 당시 인접 국가인 지금의 중국 역시 당시에는 5대 10국이 난립하여 혼란스러웠고 발해 또한 멸망해 가던 시기였다. 한반도를 통일한 태조 왕건께서는 유화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안정과 기틀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으며, 특히 934년에는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수 만 호(戶)에 달하는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통일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고려는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 등 많은 문화재를 남기고,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고려라는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금의 KOREA라는 명칭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국가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11세기 이후에는 거란족의 침입을 비롯해서 여진족, 몽골 등 외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려시대 조상님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도 외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굳건하게 나라를 지켜 왔다.

문종(文宗, 1020~1083), 원종(元宗, 1219~1274) 등 고려조 4명의 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승의전 정전(正殿) 옆 배신청(陪臣廳)에는 高麗朝의 개국공신과 충신 16명(면천인 무공공 복지겸 卜智謙), (의성인 충렬공 홍유 洪儒), (평산인 장절공 신숭겸 申崇謙), (무송인 충절공 유금필 庾黔弼), (경주인 무열공 배현경 裴玄慶), (이천인 장위공 서희 徐熙), (금천인 인헌공 강감찬 姜邯贊), (과평인 문숙공 윤관 尹瓘), (경주인 문열공 김부식 金富軾), (언양인 위열공 김취려 金就礪), (횡성인 문정공 조충 趙冲), (안동인 충렬공 김방경 金方慶), (탐진인 문정공 안우 安祐), (함안인 충렬공 이방실 李芳實), (상산인 문충공 김득배 金得培), (연일인 문충공 정몽주 鄭夢周)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²⁾

이날 승의전 제례에는 초헌관에 김덕현(연천군수), 아헌관(조범진 횡성조씨대종회 회장), 종헌관(왕두수 개성왕씨 승의전감), 봉조관(왕성규 개성왕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집례는 왕운선(개성왕씨 승의전 제례위원장) 등 총 29명의 제관이 참여하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개성왕씨 문중과 고려 충신 16공신의 후손등 300여 명이 함께 승의전에서 고려의 왕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제향을 아악에 맞추어 성대하게 거행했다.

주2)

○ 왕(8위)

태조(太祖) 왕건(王建) : 고려 개조, 창업주

혜종(惠宗) 왕무(王武) : 왕건의 적장자(큰아들), 정통성

성종(成宗) 왕치(王治) : 고려의 통치 체제 확립 및 문화 발전의 기틀 마련

목종(穆宗) 왕송(王訟) : 외척 세력의 발호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

현종(顯宗) 왕순(王詢) : 거란 외침 극복 및 국가 재건의 지도자

문종(文宗) 왕휘(王徽) :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여 고려 문화의 황금기

원종(元宗) 왕전(王倓) : 몽골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왕조를 유지한 왕

공민왕(恭愍王) 왕기(王祺) : 고려 부흥을 위해 노력한 마지막(개혁) 군주

○ 공신(8위)

복지겸(卜智謙) 개국공신/배현경(裴玄慶) 개국공신/신숭겸(申崇謙) 개국공신(왕건 대신 죽음, 1호공신, 평산신씨 시조)/유금필(庾黔弼) 개국공신/최응(崔凝) 문화공신(문벌 귀족으로, 당대 사회의 안정과 문치 발전에 기여)/서희(徐熙) 호국공신(거란 침입시, 외교 강동6주 획득)/강감찬(姜邯贊) 호국공신(거란 침입시, 귀주대첩)/윤관(尹瓘) 호국공신(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설치)

성씨연합회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으며, 연천 송의전은 행주대교 북단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송의전 입구에는 물 맛 좋은 약수터 어수정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장수로 있을 때 현재의 개성(송악)에서 철원 북단 평강고원까지 오고 갈 때마다 마셨던 물이라고 하며, 훗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태조 왕건이 마신 물이라고 해서 어수정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물 맛 좋은 어수정 앞에 송의전의 위치를 알리는 홍살문이 있으며,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을 가진 하마비(下馬碑) 비석을 지나 송의전 경내까지 약 200m 정도 걸어서 올라 가면, 길은 아주 순탄하고 태곳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시원함이 느껴진다. 짧은 산책로를 오르면 송의전의 돌담이 보인다. 송의전은 임진강을 바라보며 아미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묘전(廟殿)이다.

연천 송의전은 임진강변 아미산 자락 정상부를 못 미쳐 조성된 아늑한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임진강이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조망된다. 송의전의 유적은 600년간 지켜온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영원토록 송의전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고려 건국과 고려시대 왕과 충신들의 공헌과 그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으며, 조선 세종때에 최초로 한해에 식년시(문과) 등 3과에 장원급제 하시고 연안이씨 중흥조이신 저헌 이석형(李石亨) 선생의 처증조부(妻





曾祖父) 이신, 동방이학의 시조 고려 충신 정몽주³⁾ 선생의 위패가 16공신 중 한 분으로 연천 송의전 묘전에 봉안되어 있다.

주3) 정몽주(鄭夢周, 1338~1392) 선생은 고려 말의 문신, 외교관, 유학자이다. 본관은 연일,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 字는 달가(達可), 號는 포은(圃隱), 諡號는 문충(文忠)이다. 고려 삼은의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 경상도 우항리와 영천현을 거쳐 고려 개경에 거주하였던 그는 1360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성균관대사성, 예의판서, 예문관제학, 수원군 등을 지내며, 친명파 신진사대부로 활동하였으나 역성혁명과 고려개혁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온건개혁을 선택하였으며, 명나라에 외교관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관직은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과 익양군 총의백에 이르렀다. 역성혁명파의 조선건국에 반대하다가 1392년(공양왕 4년) 이성계의 문병차 돌아가던 길에 개경 선죽교에서 이방원 일파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의 제자들 중 길재는 사림파의 비조가 되었고 권우는 세종대왕의 스승이 되었다. 그의 손녀는 정종의 서자 선성군의 부인 오천군부인이 되었고, 증손녀 사위는 연안이씨 중흥조 이신 문강공 저현 이석형(李石亨) 공으로 세종때 한해에 삼과(三科)에 장원(壯元)을 하신, 판한성부사(현 서울시장)를 7년 연임하시고, 판중추부사, 연성부원군에 봉해졌다. 포은 정몽주선생은 삼봉 정도전의 오랜 친구였으나 역성혁명과 온건개혁을 놓고 갈등하던 중 정적으로 돌변했다. 역성혁명에 반대하다가 이성계,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방원 일파에 피살되었다. 암살 직후 역적으로 단죄되었으나, 후에 1401년(태종 1년) 태종의 손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에 추증(追贈) 되고,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중의 한 분 이시다.

2025년도 상반기 연성회(延星會) 탐방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내신 서봉 시방時昉 ·
만오 괴繪 · 야계 익태益泰 공 유적지

◆ 연성회 회장
판사공파 29세손 이일호(李一鎬)



연성회는 2025년도 선조 유적지 탐방으로 제주에 목사로 계셨던 선조님들의 발자취를 탐방하기 위하여, 회원 24명이 2025년 6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제주도를 다녀왔다.

2박3일 일정에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숙박, 식사 등 사전준비 사항이 많았는데도 용관, 완영, 광배 총무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유쾌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제주도에는 우리 선조님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으며 제주목사를 한 분이 7분이나 되어서 오래 전부터 다녀오리라 했지만 좀 늦은감이 있었다.

우리 문중에서 제주목사를 지내신 분은 다음과 같다.

延安李氏 濟州牧使 年代表

年番	牧使 名稱	赴任年月日	在任期間	備考
12代	都安撫使判牧使 이 간(李 暎)	1417年 4月(太宗17年) 1419年 6月(世宗 1年)	2年 2個月	
	判 官 인 충(仁 忠)	1465年 7月(世祖11年) 到任 (丙戌12年)	越 3年 己丑 8월에 訓練主簿에 監牧 節製都尉를 兼하다. 丙戌에 移拜去.	
55代	牧 使 이 전(李 典)	1509年 9月(中宗4年) 1510年 6月(中宗5年)	9月	
122代	牧使兼 防衛使 이시방(李時昉)	1640年 9月(仁祖18年) 1642年 8月(仁祖20年)	1年 11個月	
130代	節制使 이 괴(李 禕)	1658年 4月(孝宗4年) 1660年 5月(顯宗1年)	2年 1個月	延安李氏三陟公 宗譜에 는 괴(禕)로 기록.
152代	節制使 牧使 이익태(李益泰)	1694年 7月(肅宗20年) 1696年 9月(肅宗22年)	2年 2個月	
241代	兼防衛使 이에연(李禮延)	1830年 3月(純祖30年) 1832年 2月(純祖32年)	1年 11個月	1767(英祖43年~1843年 憲宗9年) 字는 성거(聖 舉) 號는 녹하(蠅下)

※ 朝鮮王朝實錄을 통해본 延安李氏 出身 濟州牧使記



이익태 제주목사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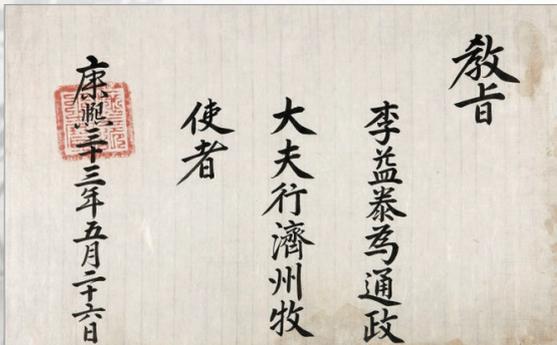


초상화 설명을 듣는 모습

이익태 (李益泰)와 제주박물관

이익태 공은 1668년(현종9) 문과에 급제하여 1694년(숙종20) 7월부터 1696년까지 제주 목사를 지내셨다.

부임중 관덕정, 운주당, 우연당, 향교 등을 중창하였으며, 우암 송시열을 굴림서원(橋林書院)에 배향하는 등 제주목을 정비하고, 제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주의 현실과 폐단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지영록(知瀛錄)』을 편찬하였다. 지영록은 제주도의 명승지들을 돌아보며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 경승지 열 곳을 선정하여 탐라십경도서(耽羅十景圖序)를 남겼다.



교지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성산, 백록담, 영곡, 산방, 서귀소, 천지연, 취병담 등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이는 제주의 명승지를 그린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영록’은 공이 목사로 부임한 시기를 중심으로 제주 17세기 목사들의 업무와 제주 실상을 파악



지영록 (知瀛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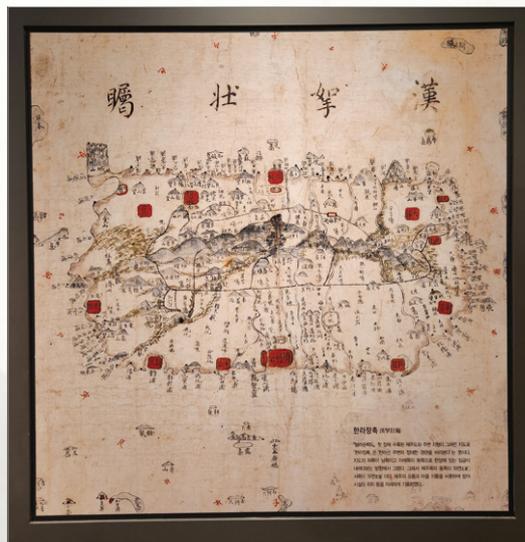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지영록’은 2002년 공의 후손인 야계(冶溪) 종친회 이완희 선생이 제주목사와 관련해 기증한 여러 유물 중 하나로 사료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물관내 잘 보이는 곳에 공의 초상화와 지영록이 잘 보존 전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류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가 부임하기 이전인 효종때부터 숙종때까지 주로 제주해역에서 발생하였던 표류기록들이다. ‘표한인기’, ‘서양국표인기’, ‘중국인표인기’, ‘김대황표해일록’ 등이 있다.

1687년(숙종13) 표류기록인 ‘김대황표해일록’은 제주인이 베트남에 표류했다가 어떻게 귀환했는지를 밝힌 희소성이 높은 해양기록이다. 이울러 이들을 신고 온 중국 선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후 중국표류인의 송환에 선례를 남겼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653년(효종4) 서양인의 제주 표착 기록인 ‘서양국표인기’는 네델란드 하멜 일행에 관한 기록으로 표착지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



이시방(李時昉)과 광해군

조선 왕조에서 폐출되어 임금자리에서 쫓겨난 인물로 광해군이 있다. 명나라의 세력은 날로 기울어 가고, 만주족 청의 세력은 날로 강성해 지는 틈바구니에서 등거리 외교로 잘 버티어온 왕조의 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여러 사건과 관련되자, 뜻있는 이들이 군사를 일으켜 능양군을 세우고 왕위에서 몰아내니 이른바 인조반정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광해군은 강화도에 귀향살이 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대접이 온전할리 없었다.

이때 제주목사로 李時昉 公이 취임해 부임하는데, 반정공신 중에도 원훈인 이귀의 둘째아들이요, 자신도 형 시백과 함께 정사 이등공신에 오른 사람이다. 말하자면 광해군을 내어쫓은 가문이요, 장본인이다.

광해군은 외부와의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들여 보내주는 음식을 받아 연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광해군은 인조19년(1641) 세상을 떠난다.

원칙으로 하자면 중앙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바닷길이 하도 멀어 일일이 지시를 기다릴 길이 없다. 公은 곧장 섬 안의 관원들을 데리고 소복하고 들어가 염습까지 맡끔히 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제주시 중앙로 82번지 제민신협 건물 옆에 ‘광해군 적소터’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그때의 일을 상상해 보며, 시방 선조님에 대해서도 모두가 각자 묵념으로 예의를 표하였다.



광해군 적소터 사진



용연 (龍淵) 과 용연마애명 (龍淵磨崖銘)

이괴 (李繪) 와 용연마애명 (龍淵磨崖銘)

용연은 용두암에서 200m 떨어진 한천의 하류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깊은 못으로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7~8m의 병풍처럼 둘러선 암벽과 맑은 물빛으로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제주도에 부임한 제주목사들은 방선문에서의 봄꽃놀이와 용연의 밤벚놀이를 최고의 풍류로 쳤다.

계곡을 따라 암벽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공의 제주목사 일행이 이곳을 방문하고 글과 이름을 남겼는데 암벽이 세월에 검게 바래 사진으로는 확실하게 볼 수 없으나, 육안으로는 대충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仙遊潭

牧使 李繪

判官 金雨

士人 崔秘

軍官 梁宇標 金梯建 李裳 安孝曾 郭國柱 朴孝元 蔡有曄

教授 河晉善未至居客之右

戊戌 仲秋 書

제주시 이도1동 1421-3 오현단 경내에 장수당(藏修堂)이라는 서당이 있는데 이는 공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장수당 굴림서원

장수당은 12칸으로 35명의 학생이 수학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에 유학이 왕성해 지고 풍속이나 교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숙종8년(1682)에는 충암묘(사당)와 장수당을 결합해 제사와 교학의 기능을 함께하는 굴림서원(橋林書院)으로 발전시켜 숙종때인 1682년 사액(賜額)을 받았다. 또한, 1658년에는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두었다.

김만일의 셋째아들 김대길(1608~1668)과 손자 김여 두사람이 말 280두를 헌납하자, 공은 조정에 이를 보고하여 김대길을 산마감목관에 임명하고 그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공은 말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말뚝을 박아 울을 만들어 뛰어 놀게 하였고, 불기에 낙인을 찍기 쉽게 하였다. 그 후 마필이 급속도로 번식하자 3년 마다 조정에 200두씩 헌납하였다 한다.



2025년도 하반기 연수회(延壽會) 탐방

여주 세종·효종대왕 영릉 그리고 남한강 신록사

◆ 연수회 회장
판사공과 26세손 이최희(李最熙)



연안이씨 연수회는 송조 돈목의 미풍을 고취하고 대중회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이 되는 여생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하였다.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항상 연안이씨대중회 및 중시조 종중의 각종 제향 및 송조 친목 행사의 홍보와 참석 안내등 송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하여 상반기 2025년 봄나들이는 안보와 예술 슬로건을 걸고 파주 오도산 통일 전망대, 뮤지엄헤이, 김포 아트빌리지 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하반기 연안이씨 연수회에서는 2025년 10월 23일 경기도 여주의 역사와 문화탐방을 위해 세종·효종대왕 영릉과 왕의 숲길, 천년고찰 신륵사, 남한강출렁다리, 황악산수목원을 다녀왔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여주쌀밥정식을 나누며 청명한 가을날의 정취를 느끼는 힐링의 하루가 되었다.

2025년 12월 12일에는 2025년 한해를 잘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하여 연안이씨 연수회 송년회를 한우 소고기로 점심식사를 하며 안녕과 건강할 것을 약속하였다.





신륵사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봉미산(鳳尾山)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신라 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여겨진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한 연못을 메우고 창건했다.

‘신륵(神勒)’이라는 절 이름의 유래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는 신이한 미륵(彌勒)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륵사의 륵(勒)자는 말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고려 우왕 때 왕사 나옹(王寺懶翁)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용마를 신비한 굴레를 씌워 얌전하게 다스렸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고려 고종 때 건너마을에 사나운 용마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자 승려 인당(印塘)이 나타나 고삐를 잡아채자 순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설화에 나타난 신력과 굴레에서 신륵(神勒)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
○



延安李氏 始祖考 大祭 奉行

◆ 편집부



전국대중회는 2025년 10월 3일 대전에 위치한 연원사에서 혁범 대중회 회장을 비롯 4개파 회장, 각 지역중회장, 연수회회장, 연성회회장, 감사, 총무를 비롯 전국에서 종친 약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정성을 다해 시조대제를 봉행하였다.

혁범 대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여름은 예상외로 무더웠는데 종친님 다들 무고하시냐고 안부 인사를 서두로, 오늘은 개천절이자 시조님 대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종친들은 다같이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후손들에게 우리의 좋은 문화를 잘 가르쳐 훌륭한 집안이 계승되도록 하자고 말씀하였다.



◇파임 (爬任)

초헌관(혁범 대중회장), 아헌관(윤희 수석부회장), 종헌관(원규 부사공과회장), 대축(용민 장학회감사), 집례(인영 대중회감사), 알자(태영 부사공과), 좌집사(선우 연원사관리이사), 우집사(현복 수도권중친회 이사)



부사공과 弘和 화백은 제5대 대중회 회장을 역임하신 恒寧 전 회장이 지으신 “始祖讚”을 명필로 써서 연원사에 기증하였다.(연원사 재실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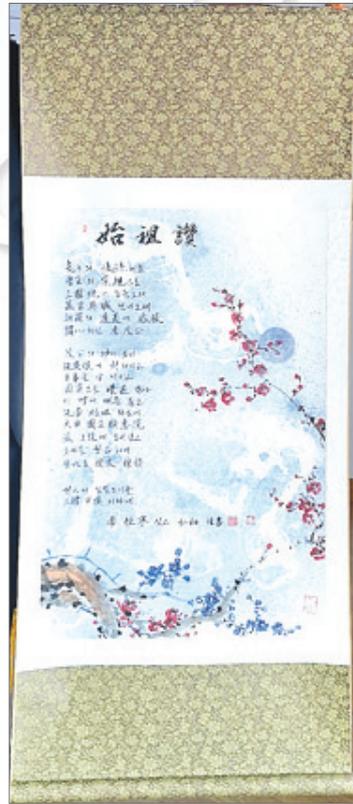
始祖讚

老子的 後孫이요
唐室의 宗親으로
三國統一 도움고져
萬里異城 건너오셔
新羅의 道義에 感服
歸化하신 李茂公

茂公의 功이 크셔
延安侯에 封해지고
臣事를 안 시키고
國賓으로 禮遇 받아
이 땅에 卍를 묻고
延李 始祖 되셨네
大田 國立顯忠院
最 上段에 모셔졌고
후예들 繁昌하여
歷代로 國家 棟樑

世人이 일컬으기를
三韓甲族 이라네

—李恒寧 짓고 弘和 謹書



◇이항녕(李恒寧, 호는 小阜, 첨사공과, 25세)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고려대 교수, 흥익대총장 역임



◇이홍화(李弘和, 호는 靑岳, 부사공과, 23세)
—서예가, 대형서예퍼포먼스
—세계최고기록 기네스인증
(순금 15만자, '법화삼부경' 완성)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시조고 대제시 향족대

2025년 10월 3일

번호	종친회 및 성명	금액(원)	비 고
1	이 혁 범	1,000,000	전국대종회 회장
2	판사공파 대종회	300,000	
3	부사공파 대종회	300,000	
4	대장군공파 대종회	300,000	
5	저헌공파 대종회	300,000	
6	첨사공파의정공 종중	300,000	
7	참의공(숙부인)파 종회	300,000	
8	이 천 공 파 종 회	300,000	
9	의정공정화파 종회	300,000	
10	력헌공파 대종회	300,000	
11	청련공파 종회	300,000	
12	부 · 경 종 회	300,000	
13	김 천 화 수 회	300,000	
14	이 남 진	300,000	대장군공파대종회 회장
15	문 청 공 파 종 회	200,000	
16	지 평 공 파 종 회	200,000	
17	통덕랑공파 종회	200,000	
18	장령공파 종회	200,000	
19	죽창공파 종중	200,000	
20	대 구 화 수 회	120,000	
21	연 수 회	100,000	
22	연 성 회	100,000	
23	농 계 공 파 종 회	100,000	
24	괴산효장공파 종회	100,000	
25	충주부호군공파 종회	100,000	
26	세 마 공 파 종 회	100,000	



번호	증친회 및 성명	금액(원)	비 고
27	연평충정공파 종회	100,000	
28	보령충정공파 종회	100,000	
29	감사공파 종회	100,000	
30	해주공파 종회	100,000	
31	좌승지공파 종회	100,000	
32	별좌공파 종회	100,000	
33	연성군파 종회	100,000	
34	재령공파 종회	100,000	
35	사평공파 종회	100,000	
36	진사공파 종회	100,000	
37	정양공파 종회	100,000	
38	충간공파 종회	100,000	
39	전주 화수회	100,000	
40	청주 증친회	100,000	
41	순천 증친회	100,000	
42	거창 증친회	100,000	
43	아산 증친회	100,000	
44	익산 청년화수회	100,000	
45	이원규	100,000	부사공파대종회 회장
46	이봉희	100,000	첨사공재령공파
47	이상희	100,000	판사공충정공파
48	이태영	100,000	대장군공파대종회(청주)
49	이환	100,000	판사공
	계	8,920,000	

- 전국대종회 : 연안이씨 증시 300개
- 판사공파대종회, 부사공파대종회, 대장군파대종회, 첨사공파의정공증중 : 회환
- 수도권증친회, 부·경 증친회, 대구화수회 : 회환

贈 좌찬성공(諱 중무),贈 좌의정공(諱 회림)
贈 이조판서 장령공(諱 혼) 추계 제향 봉행

◆저헌공과대중회
총무이사 이명훈(李明勳)



2025년 10월 10일(양력) 용인시 모현읍 능원리 문강재(文康齋)에서 판사공 7세 증 좌찬성공(휘:종무), 8세 증 좌의정공(휘:회림), 10세 증 이조판서공(휘:훈) 세 분의 추계 제향을 봉행(奉行)하였다.

세 분 선조님은 저헌공(휘:석형)의 조부(祖父), 부(父), 장자(長子)이다.

이날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경향 각지에서 오신 종친 1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저헌공과 판사공과 대종회 율희(允熙)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세 분 조상님 순서대로 추모하는 제향을 정성껏 경건하게 올려드렸다.

이날의 시제는 종전에 음력 날짜에 모시던 것을 금년부터 양력 10월 10일로 변경하여 세 분 조상님을 같은 날 제향을 봉행하게 된 것이다.

곳은 날씨에 제향 준비에서부터 뒷마무리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종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관 명단(과임)

구 분	좌찬성공(휘:종무)	좌의정공(휘:회림)	이조판서,장령공(휘:훈)
초헌관	이남승(력헌공과 고문)	이윤희(저헌공과회장)	이유승(력헌공과 회장)
아헌관	이혁범(전국대종회장)	이한영(부호군과 고문)	이최희(연수회장)
종헌관	이면희(세마공과 회장)	이지희(호판공과 회장)	이성우(연성회장)
대 축	이찬희(문천공과 회장)	이찬희(문천공과 회장)	이찬희(문천공과 회장)
집례	이인영(저헌공과 감사)	이인영(저헌공과 감사)	이인영(저헌공과 감사)
좌집사	이학훈(효장공과 부회장)	이학훈(효장공과 부회장)	이학훈(효장공과 부회장)
우집사	이석배(교관공과 총무)	이석배(교관공과 총무)	이석배(교관공과 총무)







贈 영의정(휘 정화) 정경부인 안동권씨 제향 봉행

◆ 의정공정화파종중
총무 이삼희(李三熙)



2025년 11월 28일(음력 10월 9일) 11: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22-2(신촌길 69-54)에 있는 원모재에서 贈영의정(휘 정화) 정경부인 안동권씨의 제향을 봉행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올해에도 2024년에 이어 120여 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제향을 모시고, 원모재에서 제향 후 음복을 처음으로 한식뷔페로 준비하여 종원 간에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지희 부회장의 집례로 초헌관 종손 이흥우, 아헌관 회장 이원배, 종헌관 문천공 이찬희 회장, 축관 이영선 부회장, 좌집사 통덕랑공 이종하 이사, 우집사 호판공 이사, 사진 촬영은 지평공 이창우 이사가 맡았으며, 이외에도 행사장 준비와 안내 진행 등에 고문, 감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고하였다.



의정공정화과종중 이원배 회장 인사말

13대조 의정공 정우 화우 할아버지와 정정부인 안동권씨 할머니 시제를 모시고



시제에 참여하여 주신 종원님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많은 후손(120분)들이 참석하여 주심으로 마음을 크게 모아 제향을 잘 모실 수 있어서 두 분께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다녀가셨음을 믿습니다. 원당역에서 원모재 간 차량 동승에 참여해 주신 종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공 시제에 하나의 전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익산에서 부터 버스를 전세내어 주변 종원분과 함께 참여하신 의정공 영사계 창배 회장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4대가 같이 참여하신 통덕랑공 종원님을 비롯하여 배우자 등 가족이 함께하신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연안이씨 전국 대종회, 저헌공, 문천공, 력한공, 첨사공 의정공과 창희, 지평공, 호판공, 통덕랑공, 충정공, 보령충정공, 안분재공 등 여러 종중에 서 향족대와 추모 화환을 보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들이 여러 날을 바쁘게 뛰었으나 그래도 불편한 점 많았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적인 의견 부탁 올립니다.

2026년 11월 17일(음 10월 9일) 제향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제향을 모실 계획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의정공과 종중은 선대 임원들이 세운 기틀 위에서 타 종중과 함께 '천년을 바라보며' 건강하고 믿음직한 종중이 되려고 임원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종원님들 늘~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정공정화과 종중 회장 이 원 배 배상



연천군(휘:보정)신도비 복구 제막식

◆ 부사공과 사무총장
23세손 이호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산26-1번지내

연천군 : 휘 보정, 태조2년(1393) ~ 세조2년(1456), 자는 순보, 호는 남곡.

증조는 연성부원군 문창공 전종정 이계손, 조부는 전의감정 이량, 아버지는 지보주사(옛 예천군수) 이백겸, 어머니는 군기소윤 방희우의 따님 온양방씨, 배위는 완천군 이숙의 따님 전주이씨, 아들 이승원(1428~1491)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단종 원년(1452)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병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성종2년(1471)에 명랑좌리공신으로 연원군에 봉해졌다.

성종 12년(1481)에 건립된 이보정 신도비는 조카 문장공 이숙함이 이글을 짓고 정난중이 글씨를 썼다. 그러나 원비는 강릉함씨들이 훼손을하여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여 복원도 못하고 지내던중 마침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탁본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에야 이르러 외빈 옥천면 이종길면장, 하중운부면장, 연안이씨전국대중회 이혁범회장 판사공파대중회 이윤희 회장 등 여러 종친분들을 모시고 지난번 충간공(휘 승원) 복구된 신도비 좌측에 신도비 복구 제막식을 2025년 9월 28일(일) 실시하고 설치하였다.



한국족보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편집부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보호하고자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귀중한 기록물들의 약탈, 불법거래,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한국의 족보를 등재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출범하였다.

1차로 전국 각 문종의 족보 중 1800년 이전 발간 족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2025년 11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0개 문종이 우선 족보발표회를 가졌다.

우리 연안이씨는 이혁범 대종회장이 주어진 시간내에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연안이씨 시조는 서기 660년 당나라 소정방 대총관 휘하 부총관으로 종군하시었으며 신라로부터 신라연안후의 봉작을 받으신 李茂님 이십니다.

우리 연안이씨는 신라시대때부터 시작하였으나 이땅의 다사다난한 왕조의 변천과 외부의 잦은 침략, 가족제도에 따라 가승이 보전되지 못하여, 단일 종중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증시조를 달리하는 4개 종중 대종회로 계승되어 연안이씨전국대종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따라서 족보도 4개 대종회 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4개 대종회는 태자첨사공파, 소부감판사공파, 통례문부사공파, 대장군공파입니다. 본 위원회에 38편의 년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권위 있는 족보 1편만 보고하겠습니다.”

명 칭 : 연안이씨(첨사공파) 甲戌譜 1694년
 평양감영 발간
 발 원 문 : 평안도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평양부윤 李萬元
 소유형태 : 일부 종원, 중앙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문중가세 : 2025년 통계 165,000명

정조대왕 시절 세간의 각설을 수집하여 기록한 홍제전서에 연안이씨는 삼한갑족이라 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 의장과 주석직을 4회 역임하신 李東寧 공이 우리 연안이씨입니다.

우리 연안이씨 족보중 1800년 이전에 발간된 족보를 살펴 보면,

1. 연안이씨 보첩(甲戌譜) 첨사공파

: 1694년 평양감영 발간, 평안도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평양부윤 이만원 지음, 중앙도서관, 청주인쇄박물관, 일부 종원들 소장

2. 연안이씨 己酉譜 관사공파

: 1729년 발간, 금속활자(5권, 774쪽) 일부종원 소장

3. 연안이씨 壬午譜 부사공파

: 1762년 발간, 금속활자(5권, 410쪽) 종원 보유

이상 3건의 족보가 있으나, 부사공파 임오보는 실물을 확인하였고, 갑술보와 기유보는 실물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족보의 구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존재를 아시는 종파, 종원님께서 대종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

- 2025년 현재

	유 산	등재년도	종 류
1	훈민정음(해례본)	1997년	기록유산
2	조선왕조 실록	1997년	기록유산
3	승정원 일기	2001년	기록유산
4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2001년	기록유산
5	조선왕조 의궤	2007년	기록유산
6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년	기록유산
7	동의보감	2009년	기록유산
8	일성록	2011년	기록유산
9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년	기록유산
10	난중일기	2013년	기록유산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년	기록유산
12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기록유산
13	한국의 유교책판	2015년	기록유산
14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년	기록유산
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기록유산
16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2017년	기록유산
17	4.19혁명 기록물	2023년	기록유산
18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2023년	기록유산
19	제주4.3 기록물	2025년	기록유산
20	산림녹화 기록물	2025년	기록유산

바로잡습니다

■ 제91호 기사 정정

2025년 제91호 종보(지난 여름호)에 언급된(p3, p4, p129) KAIST 이상엽교수는 부사공파로 바로 잡습니다.

부사공파에서 중간공, 거창 입향조이신 쌍청당공(繼字 俊字), 온성도호부사를 지 내신 온성공(大字 禧字)과 이며 부친은 전국대중회 회장(제9·10대)을 역임하신 故 휘영(徽永)씨 임을 알려드립니다.(족보 2권 1236p 李相燁 부사공파 23세손)

장재남(이용혁 처) 작가 개인전 '세월의 길목'

◆참사공파 28세손
이용혁(李庸赫)



부귀영화 | 70 X 45cm | 화선지에 채색 | 202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기획초대 장재남展

장재남: 세월의 길목

2025 **8.18** 월 - **8.29** 금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문화갤러리(2층)



푸른기상 | 70 X 45cm | 화선지에 채색 | 2024



옛사랑 | 70 X 45cm | 화선지에 채색 | 2023

am 9:00 - pm 5:30

(42768)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1035)

※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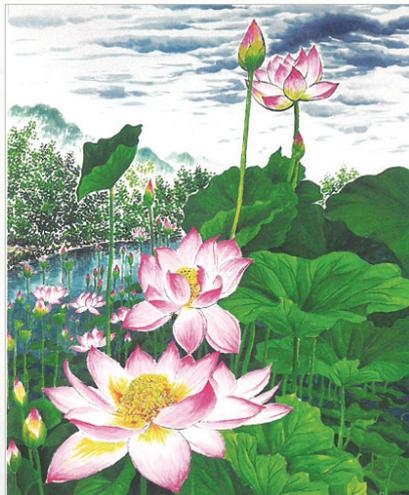
나의 아내 장재남(張在男)은 2025년 뜨거웠던 여름 2025.8.18.~8.29일 까지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문화갤러리에서 그간의 동양화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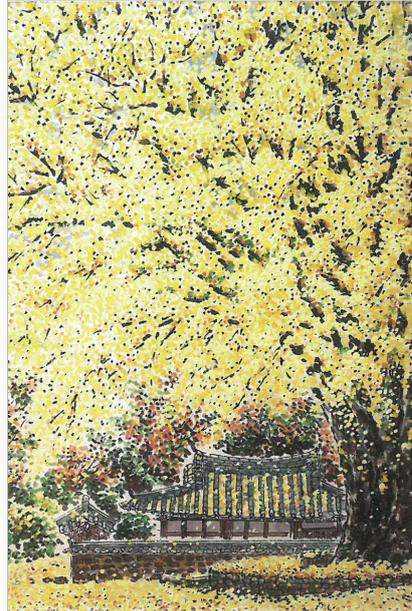
아내의 이야기와 주요 작품들을 소개해 본다.

늦은 나이에 우연히 잡은 붓이 제 삶에 새로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과의 인연이 어느덧 18년을 채웠고 칠순을 맞이한 올해 개인전에 도전해 봅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소박한 들꽃 하나에도 마음을 담다 보니 그림은 어느새 제 삶의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그려온 시간들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그림 한 점 한 점에 담아 전하오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BOSTON UNIVERSITY 입학 이서현(판사공파 28세)



이서현 종친은 청심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보스턴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합격(2024년 12월 9일)하였다.

2025년 겨울학기 과정을 등록(2025년 1월 17일)하여 수료하고, 봄학기부터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

가족 사항은 아버지 이현배(판사공파 27세), 어머니 김지연(김해 김씨), 할아버지 이영선(익산 지평공 회장, 판사공 26세), 할머니 최영임(탐진 최씨)이다.

보스턴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선호하는 학생수가 많아져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6%이내이고 과목당 평균 A이상의 성적을 요구한다.

국제학생인 서현씨의 경우는 청심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재로 수업을 받았기에 합격요건을 충족했고 입학이후의 과정도 글로벌 교수진과 학생들과의 소통 연구에도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큰 배는 깊은 물에서만 띄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드시 BOSTON이라는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제고에서 쌓은 실력을 기초로 보스턴대학교에서 다국적 교수진의 지도하에 세계무대를 가슴에 품고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로서 소양을 닦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Boston University Admissions
233 Bay State Road
Boston, MA 02215

December 9, 2024

Dear Seohyon,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Board of Admissions, I'm excited to welcome you to Boston University. You have been admitted to the College of Arts & Sciences.

Boston University is one of the finest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world, and home to extraordinary scholars from more than 100 countries who share the desire to lead in a global society. Here you will find an inclusive community of talented, ambitious students; unsurpassed academic opportunities in a wide variety of disciplines; and countless research and internship positions—all right in the city of Boston.

To accept your place in the class, please [submit your enrollment deposit](#) of \$650 by December 17, 2024. If you plan to apply for an F-1 student visa, we will issue your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after you pay your enrollment deposit. Please note that our offer is mad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you will maintain your current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in all coursework taken prior to beginning studies at BU. Unless previously submitted, you are required to submit a copy of your final transcript—including proof of graduation from your secondary school, final grades, and final external examination results, such as an IB diploma—in order to verify that your current level of performance has been maintained.

Visit the [My Academics](#) and [Next Steps](#) pages for additional important information, including submitting [health forms](#), documentation of immuniz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 Alert emergency notification system](#).

Winter Orientation begins on January 17, 2025 and campus residences will open by appointment starting January 17. During Winter Orientation, you will meet with academic advisors, register for spring classes, and get to know your classmat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Orientation website](#).

Once again, congratulations.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campus.

Sincerely,

Anne Corriveau
Director of International Admissions

보스턴대학교 합격 축하와 입학 안내서

보스턴대학교는 이서현님의 합격을 축하하며, 입학해서 세계 최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인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진과 재능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 안내를 하니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9일 국제입학처장

“지역 종친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승지공파종중 회장

이현택(李鉉澤, 1942년생)/태자첨사공파 29세
 회장 취임일자 : 2025년 12월 4일



연성군파종중 회장

이의훈(李義勳, 1947년생)/태자첨사공파 26세
 회장 취임일자 : 2026년 1월 3일



삼척공파종중 회장

이용문(李庸文, 1955년생)/태자첨사공파 28세
 회장 취임일자 : 2025년 12월 3일



현령공파종중 회장

이하원(李河源, 1953년생)/태자첨사공파 28세
 회장 취임일자 : 2025년 2월 23일



진사공파종중 회장

이병옥(李炳玉, 1947년생)/태자첨사공파 24세
 회장 취임일자 : 2026년 1월 10일



안분재공 회장

이상희(李想熙, 1951년생)/소부감관사공파 26세
 회장 취임일자 : 2025년 11월 2일



대전종친회 회장

이홍영(李鴻榮, 1955년생)/소부감관사공파 25세
 회장 취임일자 : 2025년 2월 23일

▣ 전국대중회 종보 찬조금 납부 현황 ▣

2025. 1. 1~2025. 12. 31

종친회 및 성명	금 액	주 소
이 명 성	5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이 남 진	300,0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이 정 규	300,000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이 재 호	3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이 용 상	150,000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이 좌 훈	1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이 등 운	100,000	충북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
이 현 정	1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이 삼 희	100,0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 호 석	1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 현 세	100,0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이 호 철	60,000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이 소 윤	60,000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이 응 옥	60,000	부산시 남구 못골변영로
이 응 태	60,000	부산시 영도구 동삼오션로
이 영 석	50,000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1길
이 배 훈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이 화 인	50,000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이 선 봉	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이 화 영	50,000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이 중 수	50,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
이 의 경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이 유 희	50,00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 태 영	50,000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이 승 규	50,000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이 춘 배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종친회 및 성명	금 액	주 소
이 현 만	4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남로
이 신 성	40,000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이 신 영	40,0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이 창 배	40,000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이 철 규	30,00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이 건 배	30,000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이 상 환	30,000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이 종 탁	30,000	서울시 마포구 굴레방로
이 재 훈	30,00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이 진 훈	3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이 희 완	30,000	울산시 중구 옥교3길
이 구 영	30,000	강원도 춘천시 도화길
이 교 희	30,000	충남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이 상 만	30,000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이 종 덕	30,0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이 응 철	30,000	서울시 관악구 문성로
이 종 태	30,000	대전시 중구 선화로
이 중 배	20,000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이 중 욱	2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이 응 단	20,0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의정공정화과 종회	4,200,000	
부 · 경 종 회	1,200,000	
대 구 화 수 회	800,000	
첨사공과 대종회	600,000	
문천공과 종회	600,000	
통덕량공과 종회	600,000	
부사공과 대종회	500,000	
참 의 공 과 종 회	500,000	
삼척공과 종회	500,000	
감사공과 종회	500,000	

종친회 및 성명	금 액	주 소
장령공파 종회	400,000	
청련공파 종회	400,000	
덕상공파 종회	400,000	
연성군파 종회	300,000	
연성군파 종회	300,000	중보 91호 광고료
충주부호군공파 종회	300,000	
농계공파 종회	300,000	
김천화수회	250,000	
력헌공파 종회	250,000	
찰방공파 종회	250,000	
전서공파 종회	200,000	
아산종회	200,000	
관동파 종회	200,000	
금호공파 종회	200,000	
순천종회	200,000	
대전종회	200,000	
별좌공파 종회	150,000	
교관공파 종회	120,000	
대호군공파 종회	100,000	
괴산종회	50,000	
곡성종회	50,000	
계	18,370,000	

▣ 전국대종회 등록종회 년회비 납부 현황 ▣

2025. 1. 1~2025. 12. 31

종 회	금 액	종 회	금 액
會 長	1,000,000	四友堂公派	350,000
詹事公派	1,000,000	忠定公派	350,000
判事公派	1,000,000	忠靖公派	350,000
副使公派	1,000,000	監司公派	350,000
大將軍公派	1,000,000	察訪公派	350,000
延壽會		安分齋公派	350,000
延星會		海州公派	350,000
서울(首都圈)	600,000	通德郎公派	350,000
釜·慶 宗會	600,000	德祥公派	350,000
大邱 花樹會	600,000	琴湖公派	350,000
大田宗親會	600,000	叅議公派	350,000
全州花樹會	600,000	承旨公派	350,000
清州宗會		別坐公派	350,000
金泉花樹會	350,000	延城君派	350,000
居昌宗會	350,000	伊川公派	350,000
牙山宗會	350,000	載寧公派	350,000
槐山 宗會	350,000	司評公派	350,000
典書公派	350,000	橋汀公派	350,000
副正公派		三陟公派	350,000
樗軒公派	350,000	縣令公派	350,000
文川公派	350,000	全州公派	350,000
議政公廷華派	350,000	掌令公派	350,000
龔溪公派	350,000	進士公派	350,000
兵判公派	350,000	順天 宗會	350,000
大護軍公派	350,000	新昌司正公派	350,000
副護軍公派	350,000	南臺公派	350,000
館洞派	350,000	延城府院君派	350,000
櫟軒公派	350,000	直講公派	350,000
教官公派	350,000	楊平宗會	350,000
洗馬公派	350,000	靖襄公派	350,000
持平公派	350,000	忠簡公派	350,000
通德郎公派	350,000	青蓮公派	350,000
谷城宗會	350,000		

판사공파 증시조 재실 신축성금 모금 안내

소부감 판사공파 대종회 종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사공파 후손의 숙원사업인 ‘증시조 재실 신축’은 많은 종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시어 목표액에 근접하였습니다. 모금에 참여하여 주신 종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현재 재실 전문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대 시설비는 부족하여 모금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처 모금에 참여하지 못한 종원님께서서는 ‘모금 예우 성금비 건립’ 전까지(3월 하순) 성금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금기간: 2026. 3. 까지

■ 입금 은행 : 농협 351-1327-0543-23 / 예금주 : 소부감판사공파대종회

■ 문의 전화 : 02) 576-1213 / 팩스 02) 3462-2622

* 성금 100만원 이상은 성금비에 본인과 부친 성명을 함께 기재함.

연안이씨 소부감판사공파 대종회
회 장 이 운 희

판사공파 재실 신축 현장(상량식)

2026년 1월 17일





종보 원고 및 구독 안내

종보편집위원회

종친 모두 누구나 종보에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보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매년 6월 20일까지 원고 마감 → 7월 발행

매년 12월 20일까지 원고 마감 → 1월 발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1. 선조님들의 역사, 업적, 유적, 유품들에 관한 글
2. 종원님들의 소식, 시, 수필, 기행문, 사진 등
3. 개업, 영전, 수상 등에 관한 소식

각 종친회 및 종중에서는 원고를 많이 기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또한 전종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 기고처

주 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95-15(양재동) 연이회관 3층
연안이씨 종보편집위원회

☎ 전화 02)574-2622 / 팩스 02)3462-2622

E-mail inbae-49@hanmail.net

편집인 이인배 010-5245-0502

● 구독료 30,000(년 2회)

농 협 355-0045-7645-13 예금주 연안이씨 전국대중회

